

KB국민은행,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나눔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CONTENTS

KB Kookmin Bank with Small Library

// INTRO

04P 발간사 | 행복한 삶! 좋은세상! KB작은도서관이 함께합니다.

06P 2015년 KB국민은행 사회공헌

// PART 01 작은도서관

14P 인도래 | 우리 도서관에는 옥상정원도 있어요
수원시 최초의 공립 작은도서관

20P 책읽는엄마 | 도서관이라고 책만 읽나요?
책읽는아이 | 우리는 마을공동체를 꿈꾸죠

26P 지혜의등대 | 작지만, 지혜롭고 크게 밝히겠습니다

32P 해들 | 책상 등의 물품들이 차곡차곡 채워질 때 감동이 밀려 왔어요

38P 삼성산 | 정겨운 붉은 벽돌집 2층은 아이들의 책 놀이터

43P 어울림 | 책도 읽고 친목도 도모하고, 오랜 숙원이었던 도서관 개관

48P 이삭 | 청소년들이 평화의 세상 꿈꿀 수 있도록
평화지향적인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 PART 02 군인 가족 작은도서관

54P 오션빌 | 전군 최초의 작은도서관, '큰'꿈 이룰 수 있는 '작은'도서관이고 싶어

60P 청나래 | 공군 최초의 작은도서관, 공군 작은도서관들의 롤모델 되고 싶어

66P 백골자등 | 대한민국 최전방에 문을 연 작은도서관
"독서도 마음껏 하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도 많아졌어요"

72P 청릉 | 해병대제2사단 내 개관 제2, 제3의 청릉 작은도서관이 생겨나길,
책을 매개로 한 따뜻한 공간 될 터

// PART 03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이야기

79P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80P 감사편지 | 이용자들이 전하는 감사편지

82P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국민은행지점 매칭 현황

Vol 09 KB Kookmin Bank with Small Library 2015

발행일 | 2016.3(Vol 09) 발행 |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02.515.1178)

리라이팅 | 신종선 표지일러스트 | 박창 출력 | 화이트

사진 | 백운수, 강민규 디자인 | 다예(02.2291.7479)

행복한 삶! 좋은세상! KB작은도서관이 함께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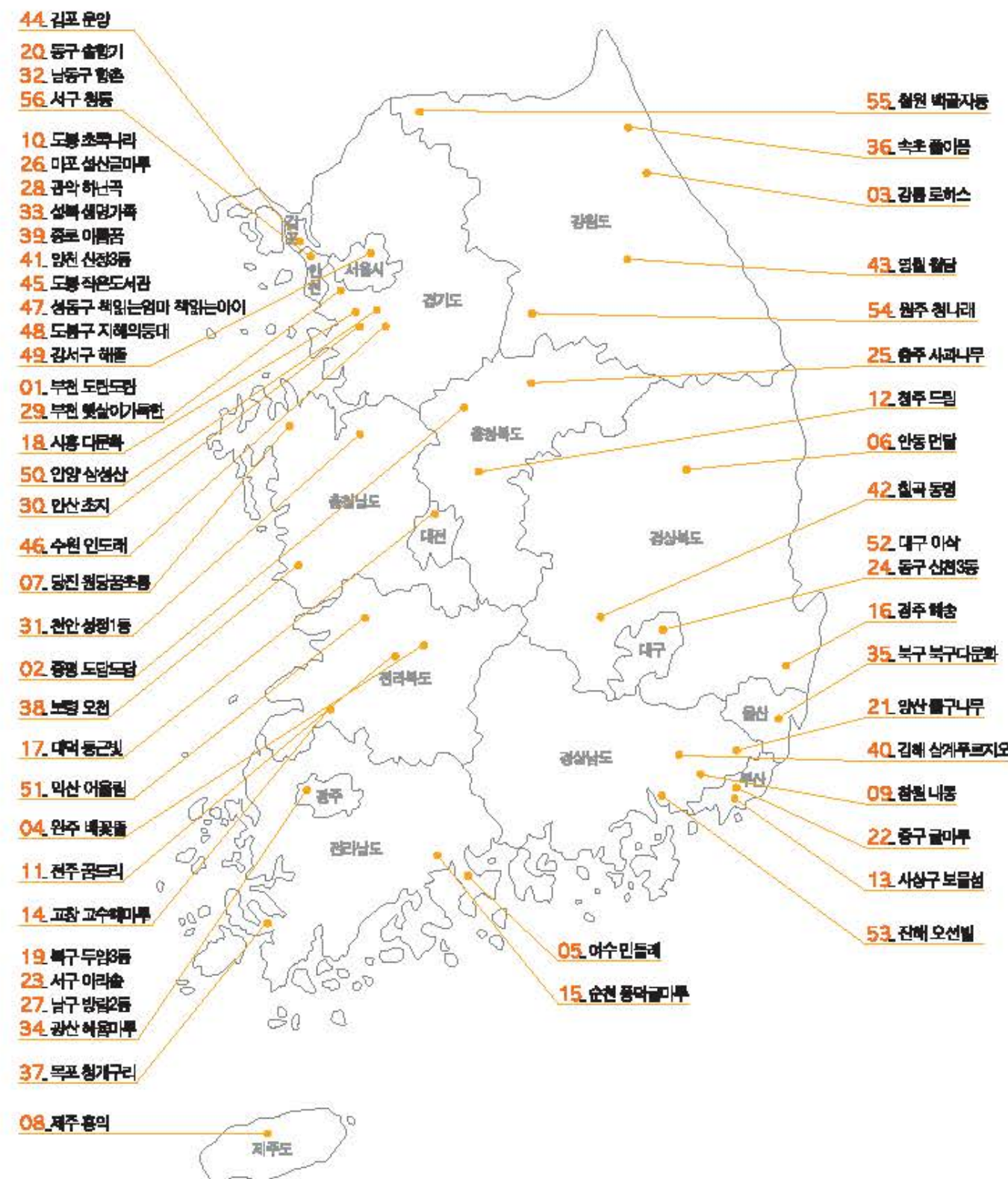
KB국민은행과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에서는 문화소외지역 주민들에게 독서의 기회를 만들어주고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삶의 질을 높여주는 작은도서관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2008년부터 문화체육관광부, MBC와 함께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 사업'을 전개하여 2015년 까지 전국에 51개 작은도서관을 개관하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책을 매개로 한 지역문화공간, 지역 커뮤니티로 뿌리내리며 지역주민들의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2015년 부터는 국방부와 협력하여 '군인가족을 위한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을 새롭게 시작하였습니다. 육군, 해군, 공군, 해병대 관사에 각 1개관을 조성, 총 4개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앞으로도 도서관이 꼭 필요한 지역, 책임감을 갈망하는 지역을 찾아 작은도서관을 조성하고 운영을 도와 행복한 삶, 좋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데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동네 문화사랑방 KB작은도서관이 전국 55개소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의 “국민에게 진심을 전하는 사회공헌”

언제나 변함없는 사랑과 관심으로 성원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KB국민은행은 대한민국 금융을 선도해 온 리딩뱅크의 위상을 더욱 굳건히 하여 고객 한 분 한 분의 목소리에 진심을 다해 귀를 기울이고 최고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객중심 경영을 실천함으로써 진정한 국민의 은행으로 거듭나겠습니다.

아울러, KB국민은행 임직원 모두는 금융인으로서의 소명과 역할을 가슴 깊이 새기고 고객님과 우리 사회에 대한 책임을 성실히 이행하여 「믿음직한 은행」, 「따뜻한 희망을 나누는 은행」으로 국민 여러분과 함께 할 것 입니다.

사회공헌 활동도 4대 추진방향인 ‘더 나은 삶의 기회제공’, ‘지역사회와 어울림’, ‘나눔문화의 사회적 확산’, ‘글로벌 나눔실천’을 수립하여 체계적인 나눔활동을 전개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시작하는 KB국민은행에 아낌없는 사랑과 격려를 부탁드립니다, 국민여러분의 사랑과 신뢰에 더 큰 감동으로 보답하겠습니다.



더 나은 삶의 기회제공

저소득 가정 어린이 교육, 환경, 복지증진 및 청소년을 위한 문화·예술 체험 및 진로 교육을 통한 청소년의 미래가치 창출

KB스타비(星) 청소년 프로젝트 보건복지부 업무 협약

KB국민은행은 2015년 12월 21일 여의도 본점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정진엽)와 지역아동센터의 아동, 청소년 성장 지원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윤종규 은행장과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참석한 이날 협약식에는 KB국민은행의 대표 사회공헌사업인 'KB스타비'에 참여하는 10개 기관 담당자들이 참석했습니다. 'KB스타비' 청소년 프로젝트는 교육, 복지, 문화, 의료, 환경의 5개 분야에서 전문 역량을 갖춘 10개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하는 사회공헌사업으로서 학습멘토링, 장학금 지원, 영어교육, 진로캠프, 기술교육 등 16개의 세부사업을 통해 4천 여개소의 지역아동센터와 7,300명의 청소년, 2,500명의 선생님들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KB국민은행은 전국 100여개 지역아동센터와 영입점을 결연하여 지속적으로 후원 할 계획입니다.

소외된 청소년 대상 대학생 학습멘토 [KB스타비 학습멘토링&다문화멘토링]

KB국민은행이 2007년부터 진행하고 있는 'KB스타비 학습멘토링'은 전국 45개 지역아동센터 이용 청소년 300여 명을 대상으로 방과 후 학습지도를 지원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수준별 학습지

원, 멘토와 멘티가 함께하는 문화체험활동, 진로교육 및 진로 캠프 통해 다양한 분야의 적성과 재능을 발견하고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KB스타비 다문화 멘토링'은 2013년부터 한글 실력이 부족하여 학교생활 및 또래 친구들과의 관계 형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가정의 자녀를 대상으로 최소 1년 이상 지속적인 대학생 학습멘토링을 지원하여 언어,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경제적 이유로 오랫동안 고향방문을 못한 다문화가정을 대상으로 모국방문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KB스타비 학습멘토링'과 'KB스타비 다문화멘토링'의 대학생 멘토 300명을 선발하고 있는 KB국민은행은 나눔에 동참한 대학생 멘토에게는 학기당 100만원의 장학금과 월별 활동비, 교재비를 지원하여 프로그램의 효율성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KB국민은행은 'KB스타비 학습멘토링'을 통해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들이 학습능력 향상으로 자신감을 회복하고 대학생 멘토와의 친근한 교류를 통해 미래에 대한 꿈을 이루며, 'KB스타비 다문화멘토링'을 통해 다문화 가정의 아동이 사회로부터 소외되지 않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움으로써 건전한 성장 및 사회적 통합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KB국민은행 진로멘토링 "꿈꾸는 대로"

KB국민은행과 함께하는 청소년 진로멘토링 '꿈꾸는 대로'는 청소년의 진로개발 역량을 강화할 목적으로 2013년부터 진행해 온 토크형 진로콘서트입니다. 2013년에 이어 2015년 세번째로 진행된 '꿈꾸는 대로' 시즌3에서는 '삼시세끼' 나영석 PD를 시작으로 굿모닝팝스 진행자 이근철, 외식산업 선두 주자 성신제 대표, 비정상학당 출연자 알베르토 몬디, 브로로를 제작한 김일호 등 글로벌 시대의 주역 5인의 멘토가 총 4회에 걸쳐 청소년들에게 직업과 진로 이야기를 전해 주었습니다.

시즌3의 첫 무대를 연 나영석 PD는 1박 2일부터 삼시세끼, 신서유기 등 최고의 예능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PD가 되기까지의 과정과 공중파TV에서 케이블TV로, 또 인터넷 방송으로 새로운 영역에 도전하며 겪은 이야기를 솔직하게 들려주었습니다. 또한, KB국민은행은 교육부의 '중학교 자유학기제 활성화와 청소년 진로교육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으며, 운종구 KB국민은행장은 "꿈을 향한 작은 노력의 조각들이 모여 큰 꿈을 이루게 한다"며 진로의 길림길에서 고민하는 청소년들에게 꿈을 향한 도전을 지속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앞으로도 KB국민은행은 청소년 지원을 통해 미래가치를 창출하는 다양한 사회공헌 사업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새내기 장애대학생 학습보조기구 지원

KB국민은행은 2015년 4월 14일 여의도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제35회 장애인의 날을 기념하며 2015년 새내기 장애대학생을 위한 학습보조기구 전달식을 가졌습니다. 장애학생들은 장애유형에 맞는 다양한 학습보조 기구가 필요하지만 경제적인 부담

및 학교자원 부족으로 구입과 사용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에 공감하는 KB국민은행은 2009년부터 장애대학생들에게 높은 품질의 학습보조기구를 지원하여 학습 효율성 향상과 학업에 열중할 수 있는 교육여건을 만들어 주고자 2015년까지 총 882명에게 학습보조기구를 지원하였습니다.

2016년에도 새내기 장애대학생에게 노트북, 태블릿PC, 아이패드 및 시각장애인 화면낭독 프로그램인 센스리더, 지체장애인을 위한 트랙볼마우스 등 최신 학습보조기구를 지원할 계획이며, 장애학생들이 꿈과 열정을 잃지 않고 학업에 정진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대학생 경제금융교육 봉사단 "올라리스"

KB국민은행은 대학생 자능기부를 통해 전국 8개 지역 초·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경제금융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매년 400명의 대학생 봉사자를 선발하여 서울, 경기, 인천, 대전, 광주, 대구, 울산, 부산 등 8개 지역의 학교, 복지기관 등 청소년들에게 양질의 경제금융교육을 제공함과 동시에 활동 완료 후 장학금을 제공하여 대학생의 학자금 부담 경감에도 기여 하고 있습니다.

2015년 한 해 동안 총 2,357회 83,685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경제금융교육을 진행했으며, 앞으로도 금융감독원과 함께하는 '1사 1교 금융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한 지속적인 금융교육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앞으로도 KB국민은행은 우리 청소년들이 올바른 소비의식을 가지고 건강하고 합리적인 소비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계획입니다.

나눔문화의 사회적 확산

임직원의 진정성 있는 사회적 참여 활성화

조선왕릉 지킴이 봉사활동

KB국민은행은 제70회 식목일을 기념하여 2015년 4월 3일 고양시 소재 서오릉(사적 제198호)에서 조선왕릉 소나무 심기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2013년 9월 헌릉(사적 제184호)을 시작으로 11월에는 동구릉(사적 제193호)에서 "조선왕릉 지킴이" 봉사활동을 가졌습니다.

2014년에도 서오릉(사적 제198호)에서 직원과 가족이 함께 소나무 심기 및 주변 환경정리 등 조선왕릉 가꾸기 활동으로 문화유산 보호의식 확산과 역사 인식 제고를 통한 사회공헌에 기여해 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화재 지킴이 봉사활동을 통해 문화 유산 보호의식 확산과 역사 인식 제고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KB국민은행은 2014년 9월 18일 국립고궁박물관에서 문화재청과 유네스코(UNESCO) 세계문화유산인 조선왕릉을 보존하고 지켜나가기 위해 상호 협력하는 "한 문화재(조선왕릉) 한 지킴이"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KB국민은행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조선왕릉 40기에 대하여 임직원과 임직원 가족은 물론 고객 참여 조선왕릉 체험 프로그램 등 지속적인 문화재 지킴이 봉사활동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찾아가는 봉사활동 희망빌레이

KB국민은행은 2015년 10월 28일 서울 중랑구 소재 용마목포공원에서 한국구세군과 함께 지역사회의 소외계층을 위한 '찾아가는 희망빌레이'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KB국민은행 소비자보호그룹 김기환 대표, 구세군자선팀비본부 이수근 사무총장, KB국민은행 본부 봉사단 80여 명 및 구세군 자원봉사자 15명이 참여하여 무료 급식과 세탁 봉사활동을 진행 하였습니다.

지역 내 소외계층 500여 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등 봉사활동은 건강식을 지원하고 집안에 묵혀두었던 이불 빨라들을 세탁하는 등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주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시에 금융사기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1대1 보이스피싱 예방교육 등 유용한 경제금융교육을 병행하였습니다.

KB국민은행 '찾아가는 희망빌레이'는 임직원과 임직원 가족이 함께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을 직접 찾아가는 의미있는 봉사활동입니다. 임직원들이 매월 급여에서 1천 원부터 1만 원까지 십시일반 모은 사회봉사단 후원금을 재원으로 운영되며, 구세군에 후원한 이동 급식차 및 세탁차 각 1대를 활용하여 지역으로 찾아가는 봉사활동입니다.

앞으로도 KB국민은행은 어려운 이웃들과 함께 소통하고 위로하며 지역주민들과 함께 희망과 용기를 북돋아 주는 희망빌레이 봉사활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사랑의 빵나눔터 봉사활동

KB국민은행은 2015년 8월 13일 경기도 성남에 위치한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중부 희망나눔 봉사센터에서 윤종규 은행장, 성낙조 노조위원장,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김훈동 회장, 성남시 수정구 한신구 구청장, 방송인 크리스티나, KB국민은행 본부봉사단 30여명 등이 참석하여 임직원들이 십시일반 모은 후원금으로 조성된 「사랑의빵나눔터」 개소식 및 봉사활동을 실시하였습니다.

KB국민은행은 임직원의 후원금으로 대한적십자사 용산봉사센터 및 성동광진봉사센터 내에 빵나눔터 시설을 후원한 바 있으며, 후원과 더불어 임직원들이 매월 정기적인 빵나눔 봉사활동에 참여해 지역사회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이 담긴 빵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빵나눔터 봉사활동은 어려운 이웃들에게 KB국민은행 임직원들의 따뜻한 마음과 사랑이 담긴 빵을 제공하는 진심 어린 사회공헌 활동으로 자리매김 하고 있습니다.

KB사랑의 행복보일러 및 연탄나눔

KB국민은행은 2015년 12월 19일 서울 동작구 상도동을 찾아 후원금으로 「KB사랑의 행복보일러·연탄나눔」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날 봉사활동에는 KB국민은행 임직원과 직원가족 100여명이 참가하여 독거 어르신을 위로하고 보일러 설치 가구에 연탄을 배달하는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KB 사랑의 행복보일러·연탄나눔」사업은 에너지 소외계층에 노후된 연탄보일러, 가스경보기와 온수공급시설을 설치하고 연탄을 전달해줌으로써 따뜻하고 안전한 겨울나기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2012년부터 시작하여 매년 실시해 오고 있으며, 지난 4년간 차상위계층, 독거노인, 장애인 등 총 650여 가구의 저소득 가정을 지원했습니다.



글로벌 나눔실천

KB만의 차별화된 글로벌 사회공헌 실천

외국인 근로자 무료의료 지원

KB국민은행은 2015년 4월 5일 안산에서 건강관리에 취약한 외국인 근로자들의 건강을 돌보기 위해 사단법인 열린의사회와 함께 무료의료 봉사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외국인근로자는 대부분 영세사업자 근무로 강도높은 육체노동과 열악한 주거환경으로 건강관리에 취약하지만, 언어의 장벽과 경제적인 부담 및 주말까지 잦은 야근으로 인해 정작 아파도 병원에 가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KB국민은행은 이러한 의료사각지대에 처해있는 외국인근로자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2016년 2월까지 총 10회에 걸친 지속적인 무료의료봉사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매월 1회, 일요일에 실시되는 주말 봉사활동임에도 불구하고 당행 직원들의 높은 참여를 반영, 총 1,257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혜택을 받았습니다. 앞으로도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지속적 이고, 진정성있는 봉사활동을 실천해 나갈 계획입니다.

KB국민은행 대학생 해외봉사단 "라온아띠"

KB국민은행은 아시아 최빈곤국 5개 국가(미얀마, 라오스,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에 대학생 해외 봉사단 "라온아띠"를 파견하여 봉사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라온아띠"란 "즐거운 친구들"이란 뜻을 지닌 순 우리말로 아시아 5개국 현지에서 파견되어 자원봉사 활동을 수행하는 KB국민은행 대학생해외봉사단의 명칭입니다. 매년 상·하반기 각각 20명씩 매년 40명이 국내훈련 1개월을 이수 후 5개월간 국제자원활동을 펼치며 아시아 각 지역현장에서 취약계층 청소년 교육, 장애 아동직업훈련 지원 등 다양한 영역에서 활동하며 지역사회발전에 기여하게 됩니다.

KB국민은행은 "라온아띠"를 통해 글로벌 지역사회의 봉사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아시아 현지의 청년들과 파트너십을 쌓고 앞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국내는 물론 해외에서의 사회공헌 활동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캄보디아 심장병 어린이 치료 지원

KB국민은행은 2015년 8월 27일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박종덕 구세군 사령관, 박인비 선수와 함께 부천 세종병원을 방문해 '캄보디아 심장병 어린이 의료 지원' 사업을 통해 국내에서 수술을 마치고 회복중인 어린이들을 격려했습니다.

'캄보디아 심장병 어린이 의료 지원' 사업은 금융감독원과 함께 캄보디아의 심장병 어린이들을 국내로 초청하여 무료로 수술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금융권 사회공헌 협력사업입니다.

2012년부터 현재까지 총 46명의 캄보디아 어린이들이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KB국민은행은 2013년 11월 심장병어린이 의료지원사업, 학교 급식 지원 사업 등 캄보디아 내에서의 사회공헌활동의 공로를 인정받아 캄보디아 왕실로부터 훈장을 수여받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KB국민은행은 캄보디아에서의 사회공헌 사업을 확대하고자 더 많은 심장병 어린이들을 지원하고자 2014년 7월 캄보디아 현지 헤브론병원에 심장센터 개소를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보다 많은 캄보디아 심장병 어린이들에게 새 생명을 줄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것입니다.

KB국민은행 미얀마 양곤 한국어학당

2015년 7월 KB한국어학당에서는 학당 소속 현지학생 50 여명이 모인 가운데 '한국어 말하기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되었습니다. KB국민은행은 2013년 10월 미얀마 양곤에 KB한국어학당을 개원하여 현재까지 운영중이며, 한국어 교육을 희망하는 현지 청소년에게 양질의 한국어 교육 및 한국문화 체험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KB한국어학당에서는 정규 한국어교육과정 이외에 한국어능력 시험(TOPIK)대비 특별 과정과 한국문화 체험행사 등 현지 수강생들의 특성에 맞춘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어, 현지에서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이처럼 KB국민은행은 세계 각지와 희망을 나누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이고 있으며, 미얀마 양곤 KB한국어학당을 통해 희망의 열매가 결실을 맺기를 기대합니다.



PART 1 작은도서관

1.1 인도래	14P
1.2 책읽는엄마 책읽는아이	20P
1.3 지혜의등대	26P
1.4 해돋	32P
1.5 삼성산	38P
1.6 어울림	43P
1.7 이삭	48P



우리 도서관에는 옥상정원도 있어요 수원시 최초의 공립 작은도서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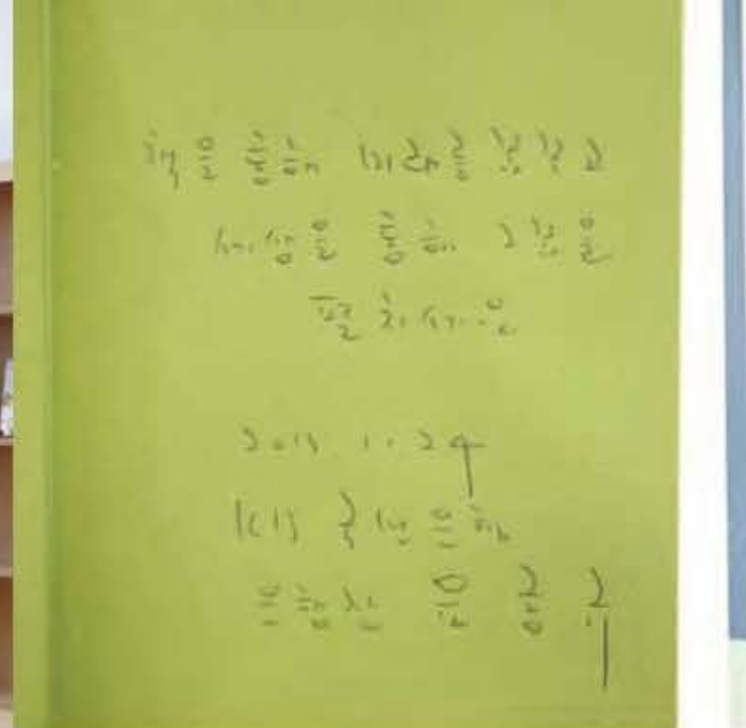
크리스마스를 한 달 여 앞둔 2015년 11월 24일 수원시 최초의 공립 작은도서관이 문을 열었다. 이들도 어여쁜 인도레 작은도서관이 그 주인공. 인도레 작은도서관이 들어선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258번지(인계동)는 본디 미화원대기소가 있던 자리였으나 이젠 책과 도서관을 매개로 소통하는 문화의 장으로 옷을 바꿔 입었다.



문화기반시설 취약 지역이라 더욱 큰 의미

인도레 작은도서관은 연면적 223.16㎡, 지상 2층 규모로 자료실, 유아열람실, 멀티미디어실, 수유실, 휴게공간, 옥상정원 등을 고루 갖추고 있다. 열람석 30석에 보유 장서 4,144권으로 문을 열었으며 향후 지속적으로 더 많은 책을 구비, 서가를 채워나갈 예정이다. 개관 당시 장서 구입에 들어간 비용은 5천만 원이지만 2016년 들어 장서 구입비 1천만 원을 추가로 확정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최하고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이 주관한 '2015 작은도서관 조성지원 공모사업'에 선정되면서 조성된 인도레 작은도서관은 KB국민은행으로부터 후원받은 3억 원과 수원시 예산 3억 원으로 지어졌다. 이 일대에 인계초등학교 등이 입지해 있으나 문화기반시설이 취약하다는 생각에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공모를 하게 되었는데 다행히 선정이 되었다. 2015년 3월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로부터 최종 공모선정을 통보받아 4월 건축계획 수립, 7월 도서관 건립 업무협약 체결, 8월에 공사착공 후 3개월의 공사기간을 거쳐 개관했다. 운영시간은 오전 9시~오후 6시까지이며 매주 월요일과 정부 지정 공휴일에는 휴관한다. 팔달구는 인구 199,180명이 살고 있음에도 공공도서관과의 거리가 반경 2㎞ 이상으로 도서관 건립이 절실한 지역이었다.

인도레



“51세 김길호입니다. 쾌적한 환경에다 친절하
직원도 계시니 자주 오고 싶어요. 주거지에 위
치해 있는 덕에 접근성이 용이해 마음이 편합니
다. 역사나 시사관련 책을 주로 읽는 편이며
대출해서 읽는 경우가 많아요.
도서 대출이 간편해서 자주 이용하죠. 혼자 올
때가 많지만 아이들과 함께 올 때도 있습니다.”

‘명사의 서가-내 인생의 책’ 코너 별도로 마련

인도레 작은도서관의 특별한 점이라면 각계각층의 명사들이 선정한 책으로 이루어진 ‘명사의 서가-내 인생의 책’ 코너가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이다. KB 국민은행 은행장 윤종규, 소설가 김훈을 비롯하여 명지대 유홍준 교수, 영화감독 이준익, 가수 조영남,
배우 이영애, 배우 채시라, 방송인 최유라, 영화평론가 허지웅, 작곡가 겸 피아니스트 이루마 등 사회 각계각층 인사들의 ‘내 인생
의 책’을 친절사인과 함께 소개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아들 명사들이 도서관에 전하는 메시지도 함께 적혀 있어 이용자들의 눈길을
끌고 있다. 이밖에도 ‘MBC 서가-콘텐츠 스토리’ 코너가 마련돼 있어 작은 즐거움을 선사하고 있는데, 이 코너에는 MBC에서 제작된
드라마 원작이나 출판서적, 그리고 아나운서들의 기증도서들이 구비되어 있다.

인도레 작은도서관은 자금과 마천가지로 앞으로도 시민 의견을 적극 반영한 독서프로그램을 실시할 예정이며, 재능 기부나 자원봉
사제 등 열린도서관 운영을 활성화 할 계획이다. 또한 지역사회방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 시민들이 자주 들러 삶을 재충전하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친숙한 공간이 되도록 노력할 예정이다.

“저는 인계초등학교 4학년 노송주입니다. 친구들이 재미있다고 해서 오기
시작했는데, 와서 보니 제가 좋아하는 만화책도 읽을 수 있어서 참 좋아요.
이층에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공간이 있는 점도 마음에 듭니다. 일주일에
한번 정도 들르는 편이며 친구와 함께 오기도 하지만 엄마와 올 때도
있습니다. 삼국지 만화책이 있으면 좋겠어요.”

인도레는 ‘사람이 오다’, ‘모여들다’라는 의미

개관식에 참석한 염태영 수원시장은 “인도레 작은도서관은 ‘걸어서 10분 이내 도서관 도시 수원 건설’을 위해 민관이 협력해 건립한
수원시 최초의 공립 작은도서관’이라며 “구도심의 주택가와 상가가 밀집한 지역에 자리 잡아 주민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독서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지역문화 휴게공간으로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수연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대표는 “인도레도서관은 지역주민의 문화시설 이용과 독서진흥, 평생교육 증진에 기여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인도레’는 인계동 자연마을의 옛 지명으로, 인계동에 위치했던 자연하천을 의미한다. 또한 ‘사람이 오다’, ‘모여들다’라는 의미도
함께 내포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각별한 느낌을 주고 있다. 도서관 명칭 ‘인도레’는 지역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 지어진 이름이다.
인도레 작은도서관은 인근에 초등학교가 있어 특히 어린이들과 학부모들이 주로 많이 찾고 있으며, 2016년 1월 한 달 간 도서관
이용자수가 1,745명에 달할 정도로 반응이 좋다. 도서관 측은 이곳이 지역의 사랑방으로 이용되길 바라고 있다. 길지 않은 기간임
에도 다형히 정착되어 겨울방학프로그램으로 ‘동화와 함께 하는 플레이아트’와 ‘책 그리고 마음’ 등의 프로그램을 운영, 책을 읽고
플레이아트로 표현하기, 보드게임하기, 감정달력 만들기, 미니케이크 만들기 등 다양한 독후활동으로 어린이로부터 성인에 이르
기까지 그 호응도가 상당히 높았다.



인도레 작은도서관 디자인설계 재능기부 고재민 수원과학대학교 실내건축디자인과 교수 미니 인터뷰



인도레 작은도서관은 그간 작은 섬터가 필요한 지역주민을 위해 태어났다. 아이들이 많은 동네임에도 불구하고 안전하게 시간을 보낼 곳이 마땅치 않고 유독 빠른 속도로 차들이 달리는 4차로가 동네 중간을 가로지르는 환경에서, 무엇보다 우선적으로 고려한 것은 사용자들이 안전하고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낼 공간이었다. 각종 소음과 위험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주어진 최소한의 재료들로 최대의 효율성을 담아보고자 대지의 공간영역을 꼭 채워 프레임화 하고자 했는데, 결국 세하안 벽으로 도서관을 둘러서 꼭 안아 놓고 내부공간을 채워나갔다. 서가와 열람공간으로 살포시 들어오는 빛을 따라 천창 너머를 바라보니 옥상정원에 앉아 봄바람 내음을 맡으며 수다를 떠는 엄마들의 모습이 보인다. 그 중 한 어머니가 내 옆에 앉아서 책을 보고 있는 아이를 바라보며 행복하게 손짓한다. 오늘도 인도레 작은도서관에는 웃음꽃이 나무핀다...

저는 인계초등학교 3학년 김주은입니다. 학교 앞에 깔끔한 새 건물이 생긴 걸 보고 호기심에 오게 되었어요. 유아방이 있는 점이 제게는 특히 좋았습니다. 특별했습니다. 책꽂이 정리가 잘 되어 있어서 손쉽게 책을 볼 수 있는 점도 좋아요. '너도 보이니' 시리즈가 구비되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한 달에 4~5회 아는 언니와 함께 놀러옵니다.



INTERVIEW_염태영 수원시장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정책방향

기존의 공공도서관만으로는 지역주민의 접근이 쉽지 않아 도서관을 이용하기에 많은 불편과 제한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런 주민밀착형 생활문화공간인 지역 내 작은도서관의 양적 성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장에 부응하는 지식정보 및 독서 활동을 지원하는 도서관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의 지원이 필요한 때이기도 합니다.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연계 강화도 중요합니다. 이에 따른 작은도서관 활성화 위한 정책 방향으로 첫째, 작은도서관의 실태조사와 조례 제·개정 등 제도적 기반정비 및 보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며 둘째,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이 연계된 운영모델 구축도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셋째로는 작은도서관 운영자 역량강화 지원 및 보조사업 확대 추진도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조성된 작은도서관의 운영을 어떻게 실질적으로 정착시키고 활성화시킬 것인가에 무게 중심을 둔 작은도서관 정책과 패러다임의 변화도 요구되는 시점입니다. 수원시는 이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개관의 의미와 소감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수원시가 '걸어서 10분 이내 도서관 도시' 구현을 위해 공공도서관을 확충하고 있는 가운데 민관협력으로 추진된 수원시 최초의 공립 작은도서관입니다. 후원사인 KB국민은행과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에도 감사드립니다.

인도레 작은도서관 건너편에는 인계초등학교가 있어 미래의 꿈나무인 어린이가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구 도심의 주택가 및 상가가 밀집한 지역에 건립되었으므로 주민생활과 밀접한 곳에서 독서와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뜻 깊은 장소가 될 것입니다. 인도레 작은도서관은 지역 문화 휴게공간으로 자리 잡아 시민의 행복 지수를 높이고 있으며, 현재 1일 평균 이용인원이 80명을 상회하고 있습니다. 인도레 작은도서관은 지속적으로 사람과 책이 만나는 공간, 사람과 사람이 소통하고 스토리가 있는 시민의 사랑방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지역 주민에게 하고 싶은 말

수원시는 인문학 독서환경 및 독서 붐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이를 위한 방안으로 인문학 프로그램 운영, 도서관 문화축제 추진, 책 읽는 직장 만들기, 도서관과 사회적 경제의 네트워크 구축, 도서관 특화정보 통합원스톱 서비스 구축, 정보기술을 활용한 '사람이 편리한 도서관 구현', 작은도서관 활성화 등의 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도서관별로 좀 더 개선되고 차별화된 독화 주제에 맞는 자료 수집과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시민들에게 양질의 다양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인도레 작은도서관

원래는 미화원대기소가 있던 자리였으나 자료실, 아기 동지방, 어울림터, 휴게공간이 있는 독서 문화공간으로 신축되었다.

도서관명 : 인도레 작은도서관
 개관일 : 2015년 11월 24일
 소재지 :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25(인계동)
 면적(규모) : 대지면적 342.2㎡, 연면적 223.16㎡
 시설내역 : 자료실, 아기동지방, 창고, 어울림터, 휴게공간
 열람석 : 30석
 장서(도서수) : 4,144권

회원수 : 121명
 이용현황 : 1,745명(2016.1.1~2016.1.31 기간 동안의 인누계)
 운영자 : 운영주체-수원시(지자체 책임),
 담당부서-선정도서관
 운영시간 : 화~일요일, 09:00~18:00
 정기휴관일 : 매주 월요일, 일요일을 제외한 국가자정 공유일
 전화/팩스 : 031-228-3531 / 031-228-3787
 홈페이지 : <http://ind.suwonlib.go.kr>



책 읽는 엄마 책 읽는 아이

도서관이라고 책만 읽나요? 우리는 마을공동체를 꿈꾸죠

책 읽는 엄마 책 읽는 아이 작은도서관은 조금 특별하다. 근린공원 안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과 책을 함께 만날 수 있는 힐링 공간이기 때문이다. 독서삼매경에 빠져 책을 읽다가 피로해진 눈을 들어 창밖을 보면 푸른 자연이 바로 코앞이다. 성동구 매봉 18길(금호동3가 산2-8), 문을 열어젖히면 숲이 먼저 반기는 멋진 장소, 여기에 책 읽는 엄마 책 읽는 아이 작은도서관이 있다. 어머니의 너른 품과 같은 역할을 자처하는 도서관이기에, 이곳에서 어린이들은 더욱 성장할 수 있고 청소년은 더 마음껏 생각할 수 있으며 어른들은 편히 쉴 수 있다.



마을 노인정으로 운영되던 장소를 리모델링

책 읽는 엄마 책 읽는 아이(이하 책 읽는 아이) 작은도서관은 지금의 장소에서 좀 떨어진 행당동에서 어린이도서관으로 운영되던 곳이 었다. 그 기간이 무려 15년이다. 긴 세월만큼이나 책을 매개로 한 마을공동체로서 지역주민들과 함께 했으나 추억의 공간을 비워 주어야 하는 피치 못할 상황이 발생했다. 하지만 그동안 형성된 공동체와 도서관 운영의 경험을 단절시킬 수는 없는 노릇이었다. 안타까운 마음을 안고 타개책을 모색하던 중 행정자치부가 주관 하는 '2014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에 공모하여 운중계 선정되어 노후된 건물을 리모델링하였다. 더불어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으로 도서관을 꾸밀 수 있게 되었다.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함께 하게 되면서 책 읽는 아이 작은도서관은 새롭게 느낀 비가 많다. 사립작은도서관을 운영하던 기간 동안 늘 하던 생각, 즉 이러한 문화공간에 대한 사회적 지지와 관심이 부족하다는 선입견에서 벗어나게 되었기 때문이다.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사업을 통해 기업과 단체들의 사회참여 의지와 후원자의 마음을 알게 되어 도서관 운영에 큰 힘이 되고 있다.



“46세 주부 이민옥입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공간이 될 것 같아 왔는데 오히려 나 자신에게 힐링이 되고 있어요. 아늑한데다 아기자기까지 해서 느낌이 좋아요. 주로 책을 읽지만 가끔은 편한 마음으로 스스럼없이 얘기도 나눌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공간입니다.”

리모델링을 통해 새로이 책엄책아 작은도서관이 들어선 자리는 본래 마을 노인정으로 운영되던 곳이었다. 그러다 재개발로 인해 동네 주민들이 모두 외지로 나가게 되면서 빈 공간으로 방치되어 있던 건물이다. 실은 기존의 도서관을 이곳으로 이전하면서 예전 이용자와 이별하는 게 아쉽고 걱정이 많이 했었다. 하지만 그건 기우였다. 거리가 멀어졌음에도 그들은 매일 찾아와 새 공간 입주과정에 솔선수범하여 손을 거들었다. 함께 청소하고 정리했다. 또한 새로운 장소에 살고 있는 동네주민들도 따스한 눈길로 지켜봐주고 개관 날짜를 손꼽아 기다려줬다.

십진분류법 따르지 않고 자관분류법에 의해 분류

책엄책아 작은도서관은 그 어느 작은도서관보다 대규모의 장서를 보유하고 있다. 이는 지난 15년간 꾸준히 모아온 장서들로 15,000권 정도 된다. 책엄책아 작은도서관은 과거 어린이도서관이었던만큼 특히나 훌륭한 어린이 책을 많이 보유하고 있는데, 우리 작가들의 작품 활동이 활발했던 2000년대 초반의 국내 작가들의 도서를 비롯하여 우수한 외국작가들의 좋은 작품들도 대거 보유하고 있다. 많은 수의 책이 있고 오랜 연륜을 자랑하는 도서관인 만큼 손이 많이 가는 것은 당연지사. 이제부터 차차 발행된 지 10년이 넘거나 낡은 책들은 정리하여 수시로 신간으로 교체할 것이고, 이용자들이 좋은 책들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작가별, 주제별 기획전과 책 코너를 진행할 예정이라니 기대가 크다.

책엄책아 작은도서관은 일반도서관과 달리 도서 정리에 있어 십진분류법을 따르지 않고 자관분류법에 의해 분류하고 있다. 장서의 90% 이상이 문학에 한정되어 있어 십진분류법에 의한 분류가 큰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우선 어른 책과 어린이 책으로 일차 분류한 후 어른 책은 다시 작가, 출판사, 주제, 신간 등으로 분류하였다. 어린이 책은 그림책과 글책으로 나누어 각각 출판사별로 분류하고 유아는 3~4세와 5~8세로, 어린이는 초등1~2학년, 3~4학년, 5~8학년으로 연령을 구분하여 서가에 비치하였다. 이러한 분류법은 2만 권 이하 작은도서관에서 이용자가 좀 더 쉽게 자신에게 맞는 도서를 찾을 수 있고, 사서들의 도서관리와 자료검색에도 유익하다는 게 도서관측의 설명이다.

“저는 경동초등학교 6학년 홍서진입니다. 행당동에던 있던 책엄책아가 이쪽으로 옮겼다는 말을 듣고 왔어요. 여기는 다른 도서관에 비해 자유로워서 좋아요. 엄마와 함께 일주일에 한번 정도 방문하며, 주로 소설책을 읽습니다. 북카페가 있는 것이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합니다.”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공간을 만드는 것이 목표

책임책아 작은도서관이 위치한 금호동은 서울의 대표적 달동네였다. 오밀조밀 골목이 있고 이웃이 있는 동네문화가 남아있던 곳이었으나 지금은 재개발로 주변에 아파트건설이 한창이다. 오래 터를 잡아 살던 현지인들은 모두 의지로 나갔지만 아파트가 들어 서고 입주가 시작되면 새로운 주민들이 들어올 것이다. 아파트 입주가 시작되는 가을쯤이면 책임책아 작은도서관은 벌써 자리를 잡았을 것이고, 새로운 주민들을 두 팔 벌려 환영할 것이다. 어린이들에게는 좋은 책과 문화를 만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주고, 새로운 살터를 마련한 주변아파트 입주주민들에게는 새 이웃과 공동체를 만날 공유공간이 될 것이며, 공원을 방문하는 사람들에게는 자연 속에서 좋은 책과 문화프로그램을 나누는 영혼의 쉼터 역할을 할 것이다.

사실 도서관 주변 아파트 단지에 입주하는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살터에 대한 설렘도 물론 있었겠지만 낯설 또한 함께 존재할 것이기에 거리감이 없을 수 없다. 그래서 책임책아 작은도서관은 책을 매개로 한 마을공동체를 꿈꾼다. 단지 책만 보러 왔던 사람들에게 이웃을 만나게 하고 함께 문화를 나누면서 친근한 사이가 될 수 있도록 어머니의 품과 같은 공간이 되려고 한다.

책임책아 작은도서관은 지난 15년간의 운영을 통해 건강한 어른들의 문화를 보고 그 관계 속에서 자란 어린이들이 잘 자라는 것을 지켜보았다. 그 경험을 더욱 확장하여 이제는 어린이와 어른 모두가 성장하고 함께 하여 모두가 행복한 도서관이 되고자 한다.

“42세 학부모 정나형입니다. 3년 전 성동구로 이사 오면서 발견한 책임책아가 새로 숲속으로 자리를 옮겨서 오게 되었습니다. 마치 휴양지에 놀러오는 기분이 들만큼 올 때마다 상쾌합니다. 마을 아이들과 그림책을 읽을 때도 있고 그저 와서 차 마시며 놀다 가기도 합니다. 이곳은 한번 발걸음을 하면 빠져나기 힘든 마성이 있는 매력적인 곳입니다.”



INTERVIEW_정원오 성동구청장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개관의 의미와 소감

KB국민은행의 후원으로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과 성동구가 상호 협력하여 조성한 ‘고맙습니다 책임는엄마 책임는아이 작은도서관’이 2016년 2월 24일 개관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지난 1년간 작은도서관 조성을 위해 힘써주신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관계자 여러분께 30만 성동구민을 대표하여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작은도서관은 관내 유휴시설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공유공간으로 바꾸는 사업의 일환입니다. 성동구는 작은도서관이 지역 문화를 선도하는 마을문화공간의 중심, 이웃 간 문화 교류 확대에 기여하는 복합 문화공간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습니다.

지역 주민에게 하고 싶은 말

작은도서관은 남녀노소 누구나 자유롭게 이용하며 이웃 간 소통하는 공간입니다. 단지 책을 읽거나 공부를 하는 곳이 아니라 어린이들의 놀이공간, 어르신들의 취미생활 공간, 온가족의 문화체험 공간입니다. 그리고 저소득 아이들을 돌보고 독거어르신들에게 도시락을 제공하는 등 나눔을 실천하고 이웃에게 따뜻한 정을 나누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이번 ‘고맙습니다 책임책아 작은도서관’ 개관으로 주민들이 다양

한 이야기를 공유하고 양질의 문화프로그램을 체험하면서 삶의 질이 향상되길 바랍니다. 개관해주어서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정책방향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과는 달리 동네 곳곳에 만들어지기 때문에 지역주민 전체가 가까운 거리에서 가장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문화 공간입니다. 현재 성동구는 공립 17개소, 사립 10개소를 포함한 총 27개의 작은도서관을 운영 하고 있습니다. 구 자체적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공립 작은도서관의 신간도서 구매 및 도서관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시와 연계하여 명예 도서관장을 위촉하고 육성하는 등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책임는엄마 책임는아이 작은도서관

근린공원 안에 위치하고 있어 자연과 책을 함께 만날 수 있는 힐링 공간

도서관명 : 책임는엄마 책임는아이 작은도서관
개관일 : 2016년 4월 7일(재개관일: 2016년 2월 24일)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마포 18길 11(금호동3가 신 2-8)
면적(규모) : 대지면적 220㎡, 연면적 221.55㎡
시설내역 : 1층 어린이열람실, 교육실, 사서실
2층 마을공유공간, 북카페, 사서실
열람석 : 80석

장서(도서수) : 약 15,000권
회원수 : 195가족회원 (총회원수 195X3.5명=682명)
운영자 : 관장1명, 상근활동가2명, 자원활동가 3명, 자원봉사자 30명, 청소년자원봉사자 10명
운영시간 : 평일 10시~18시, 토요일 10시~18시 (월요일/일요일/공휴일 휴관)
전화/팩스 : 02-2297-5935 / 02-2297-5933



지혜의등대

작지만, 지혜롭고 크게 밝히겠습니다

지혜의등대 작은도서관이 마침내 문을 열던 2015년 11월 19일, 도봉문화화관 1층 예식홀은 자못 축제 분위기였다. 마리오네트 인형 제작 심대경에 빠져있는 주부, 포꾸리주머니 만들기에 여념 없는 청소년, 배지 만드느라 신난 아이들, 여기에 가수 서수남과 청소년 챔버 오케스트라의 축하공연이 더해져 분위기가 한껏 달아올랐다.



남자 독서실로 이용되던 공간을 리모델링

지혜의등대 작은도서관은 지난 2014년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사업에 선정되어 리모델링을 추진하다가 중단된 사연을 가지고 있다. 당시 도봉구민회관 4층을 리모델링하여 도서관으로 개관하고자 했으나 건물 안전진단 결과 문제가 있다는 걸 발견하게 되었다. 건물 전체 리모델링 보강공사가 선행되지 않으면 안 될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자연히 작은도서관 공사는 지연될 수밖에 없었고 그 소식이 전해지자 주민들의 실망은 이만저만한 게 아니었다. 그런 만큼 도서관이 만들어져가는 과정을 수시로 와서 보고했다는 게 후문이다. 기다렸던 기간만큼 기쁨은 배가 되었다. 너무 늦게 개관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없진 않지만 안전하고 산뜻하게 단장된 도서관을 보게 되자 주민들은 한 마음으로 도서관 개관을 축하했다.

지혜의등대 작은도서관이 들어선 도봉구민회관은 강북구에서 도봉구로 들어서는 자점으로, 4차선 대로변 접근이 용이한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 이러한 입지는 주변 상가 상인들과 거주자 주민들 모두를 만족시키는 조건이 되고 있다. 80% 이상이 아파트 형태의



전형적인 세대별 주거지역이며, 구민회관 하루 평균 이용인원은 1,500명가량 된다. 지난 1993년 12월 개관 이래 도봉구민회관은 다양한 문화강좌와 체육·유아강좌 등을 운영하고 있는데, 회관 내 남녀독서실의 이용자 수가 서서히 감소하자 작은도서관 개관에 눈을 돌리게 되었다. 이때 남녀 따로 있던 독서실을 하나로 합쳐 운영키로 결정하고 남자 독서실로 이용되면 60명 정도의 공간은 작은도서관으로 리모델링하게 되었다.

“대학교 1학년 김혜림입니다. 구민회관 4층에 도서관이 생겼다는 말을 듣고 궁금해서 방문했습니다. 새 도서관이라 깨끗해서 좋아요. 주로 혼자 오는 편이고 2주에 한번 꼴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저는 소설을 좋아하는 터라 도서관에 오면 거의 소설책 위주로 읽고 있습니다.”

북스타트 사업,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 실시

지혜의동대 작은도서관은 북스타트 사업을 적극 실시하고 있다. 북스타트 사업이란 '책과 함께 인생을 시작하자'라는 취지로 북스타트코리아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주민을 위해 펼치는 지역사회 문화운동이자 육아지원 프로그램이다. 즉 갓난아기 때부터 책과 친해지도록 하는 활동으로 3~6개월, 19~35개월, 35개월~취학 전까지의 성장단계별로 신청자에 한해 책꾸러미를 선물한다. 단계별로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책꾸러미에는 그림책 2권, 손수건, 북스타트 안내책자, 부모를 위한 가이드북, 스케치북, 북스타트 가방 등 북스타트 사업 프로그램에 필요한 물품들이 들어있으며 엄마와 아이, 자원활동가들이 한데 모여 책을 읽어주거나 다양한 놀이를 진행한다. 지혜의동대 작은도서관의 경우 3명의 자원활동가들이 북스타트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한 지혜의동대 작은도서관은 '2016 도서관문화가있는날' 공모사업에도 참여하고 있으며, 한편의 책을 선정하여 다함께 읽고 토론하는 '한 도서관 한 책 읽기' 협력사업도 진행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도봉구 북페스티벌 등 도봉구에서 추진하는 도서관 관련 행사 참여를 비롯하여 1일 도서관학교 등 재능기부 프로그램도 진행할 예정이다.

“34세 주부 이현지입니다. 구민회관에서 유아관련 강좌를 듣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오게 되었습니다. 아들과 함께 주 2회 정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이 아담해서 책 찾기에 편리하고 아늑합니다. 유아방이 따로 마련되어 있어서 아이를 데려와도 마음이 편하고 안심이 됩니다.”



책을 매개로 한 사랑방 같은 도서관 추구

KB국민은행 후원 1억에 7,500만원의 구비를 합친 사업비로 만들어진 지혜의동대 작은도서관은 36석의 열람석(자료실 24석, 유아실 12석)에 장서는 7,539권(2016.1.31. 기준)을 보유하고 있다. 개관할 당시엔 사서가 배치되기 전이라 지역 내 공공도서관 사서의 협조를 받아 도서를 선정하여 구입하였지만 향후로는 주민들의 니즈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며 아울러 사회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기관(단체)의 기증도서나 도봉구 통합도서관 재기증 도서 등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특히나 다양한 이용계층에게 고루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분야별 균형성을 고려하여 선정할 계획이다.

지혜의동대 작은도서관은 주로 가족단위로 이용되고 있는 편이며, 성인 이용자가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한 특성에 맞춰서 주민들에게 책을 매개로 하면서 편하게 할 수 있는 사랑방 같은 도서관 만들기를 추구하고 있다.



“47세 이원교입니다. 평소 구민회관 독서실을 이용하는 관계로 오게 되었습니다. 큰 도서관에 가면 어수선한 분위기 때문에 독서에 방해를 받곤 했는데 이곳은 아늑해서 집중이 잘되어 마음에 듭니다. 일주일에 2~3일 가족들과 함께 방문하고 있어요. 주로 독서를 하지만 가끔은 일과 관련된 보고서를 보기도 합니다.”



INTERVIEW_이동진 도봉구청장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개관의 의미와 소감

작년 11월 도봉구에는 작은 동네 하나가 세워져 빛을 보았습니다. 이 동네는 바로 도봉구민 회관 4층에 세워진 '고맙습니다 지혜의동대 작은도서관'으로 도서관 이름처럼 도봉구의 아이들의 지혜를 밝혀주는 동네 역할을 하는 작은도서관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도서관은 주로 인근 학교와 아파트 지역 주민들과 아이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올해부터는 상호대차 서비스를 통하여 도봉구 구립도서관의 책들을 공유할 수 있으며, 유아를 위한 북스타트 데이와 도서관 탐방, 도서관 행사 등 다양한 문학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새롭게 조성된 독서문화 공간에서 가족들과 함께 아이들이 책을 읽는 모습을 보면서, 시간이 지나 도서관의 빈 서가의 책들이 점점 채워지듯 우리 아이들의 지식과 인성도 채워질 것이라 확신합니다. 지혜의동대 작은도서관을 조성, 후원하여 주신 KB국민은행과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에 감사드립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정책방향

도봉구는 주민들의 독서진흥을 위해 공공도서관을 확충하고 작은도서관을 지속적으로 조성하였습니다. 양적인 성장뿐만 아니라 내실 있는 작은도서관 운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호대차서비스를 일차간지 실시하여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을 연계한 도서대차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작은도서관 전담사서 운영을 통한 작은도서관 서비스 질 향상을 도모하고 있고, 도서관 네트워크를 통해 상호 연계방안을 꾸준히 모색하고 있습니다. 작은도서관은 아이들에게 학습공간이며 놀이공간이고, 가족·이웃과 함께 하는 동네 사랑방과 같은 커뮤니티 공간입니다. 도봉구는 앞으로도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통해 지속적으로 작은도서관 조성 및 운영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에게 하고 싶은 말

작년이 도서관의 외적인 성장을 이룩한 한 해라 보면, 올해는 지역 내 독서문화 분위기를 확산하고 주민에게 좀 더 다가가는 도서관이 되고자 '함께 읽는 도봉'독서문화캠페인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을 통해 작은도서관을 비롯한 모든 도서관이 함께 참여하여 함께 읽기 좋은 책 선정, 북콘서트, 독서 릴레이 저자강연회, 독서토론, 북페스티벌 등 다채로운 행사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도봉구는 책을 통해 구민과 서로 공감하고 소통하는 도봉구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도서관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지혜의동대 작은도서관

기존에 있던 도봉구민회관 내 남녀 독서실을 하나로 합치고 남자 독서실로 이용되던 공간을 리모델링하였다.



도서관명 : 지혜의동대 작은도서관

개관일 : 2015년 11월 19일

소재지 :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552 도봉구민회관 4층

면적(규모) : 연면적 180㎡

시설내역 : 유아실, 자료실, 휴게실

별첨적 : 35석(자료실 24석, 유아실 12석-입석8 좌석8)

장서(도서수) : 7,599권(2016.1.31 기준)

회원수 : 개관~2016.4.30(예정)까지는 회원증 미발급 및 열람 서비스만 실시

이용현황 : 2,519명(개관~2016.1.31)

운영자 : 총2명(사서 : 1명, 사무보조 : 1명)

운영시간 : 평일 : 9시~18시, 토요일 : 9시~17시
(휴관일 : 매주 일요일, 법정공휴일, 임시휴관일)

전화/팩스 : 02)901-5180-2 / 02)999-4418



해들

책상 등의 물품들이 차곡차곡 채워질 때 감동이 밀려 왔어요

"도서관 리모델링 공사가 끝나고 서가, 의자, 책상, 컴퓨터, 신발장, 쿠션 등 필요 물품들이 차곡차곡 채워져 갈 때에는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특히나 서가와 책상, 의자 등이 모두 원목으로 만들어져 있는 걸 직접 눈으로 보게 되자 감동이 밀려왔습니다." 해들 작은도서관 관계자의 말이다. 해들 작은도서관이 위치한 강서구 방화동 지역이 어린이와 청소년층을 위한 문화시설 취약지역이다 보니 특히나 감회가 새로웠을 것이다.



대표적 문화 취약지대에 들어선 귀하고 소중한 존재

지난 2016년 7월 29일 서울 강서구 방화3동 방화도시개발아파트 2-1단지에 들어선 해들 작은도서관 개관의 의미는 남다른 감동으로 다가왔다. 1993년 조성된 영구임대아파트인 방화 2-1단지는 총 1,563세대 중 기초생활보장수급자가 905세대이며 차상위계층 74세대가 살고 있다. 주로 저소득층 주민, 어르신 및 장애인 주민들이 많이 살고 있는 곳이라 독서활동은 물론이려니와 문화 활동 자체가 먼 세상 얘기였다. 경제적인 문제가 원할치 않다 보니 아이들 또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상태였고, 아이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시설이라야 고작 어린이도서관 1개 정도였다. 이런 현실에서 만들어진 도서관이라 주민들에게 더욱 귀하고 소중한 존재로 여겨지고 있다.

해들 작은도서관은 방화2동 종합사회복지관내 3층에 위치하고 있다. 이곳은 원래 '위스타트(We-Start) 강서마을'사무실과 아동 프로그램실로 사용되던 곳이었지만 리모델링을 통해 이번에 작은도서관으로 재탄생했다. 8년간 운영되던 위스타트 사업이 마침



끝나는 사점이라 시기적으로도 잘 맞아떨어졌다. 위스타트 사업이란 가난의 대물림을 끊고 아이들에게 공정한 출발선을 제공하기 위해 저소득가정에 복지, 보건 교육 사업을 수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저는 동화책과 만화책을 좋아하는 초등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인 김나연입니다. 해물 작은도서관에는 제가 좋아하는 책이 많아요. 예전에는 책을 읽기 위해 어린이도서관에 가곤 했는데 집에서 멀어서 힘들었어요. 이제 동네에 도서관이 생기니까 너무 좋아요. 어느 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5일 내내 온 적도 있어요.”

책두레 서비스를 이용하여 타 도서관 자료도 대출가능

면적 165㎡, 열람석 36석, 열람실과 유아독서실 등을 갖추고 있는 해물 작은도서관의 장점이라면 책두레 서비스를 통해 타 도서관 자료도 대출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책두레 서비스를 이용하면 동네에서 멀리 있는 도서관에서도 수월하게 책을 빌릴 수 있어 편리한 점이 많다.

해물 작은도서관이 보유하고 있는 장서는 현재 5,217권. 보유 장서는 기존 복지관에서 보유하고 있던 책에다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의 지원 도서, 강서구청과 국제개발 NGO기관인 굿네이버스와 세종도서 지원까지 두루 합하여 마련한 도서들이다.

물론 앞으로도 꾸준히 기증을 받거나 도서관 예산을 통해 도서 구입에 신경을 쓸 예정이다. 다행히 분기별로 강서구청에서 도서관 입비를 지원해주고 있고 운영법인인 굿네이버스에서도 후원을 해주고 있어 도서 확보에는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도서관 관계자는 예측하고 있다.

해물 작은도서관은 이용자들의 니즈에 부응하기 위해 추천 도서목록표를 항상 비치해 두고 있다. 추천 도서목록표는 이용자들이 자유롭게 작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목록표를 통해 이용자들이 원하는 책이 무엇인지 파악 가능하다.

“24살 대학생 김정민입니다. 동네에 도서관이 생겼다는 소식을 듣고 궁금하던 차 마침 학업에 필요한 책을 대출하기 위해 오늘 들렸습니다. 실내화를 착용한다는 점과 바닥이 온돌이라는 점이 특이하고 정겹게 느껴집니다. 인문학서적을 읽기에 좋은 장소라고 여겨집니다.”



자원봉사자들의, 자원봉사자들에 의해 운영되는 모범사례

해물 작은도서관은 유독 자원봉사자들의 활약이 두드러진다. 우선 월 1회 회의를 통해 도서관 운영 전반과 자원봉사자 관리에 대한 사항을 수시로 논의하는 자원봉사자들로 구성된 도서관운영위원회가 있는가 하면 또 하나의 자원봉사자들로서는 주민자원봉사자들을 들 수 있다. 특히나 이들 주민자원봉사자들은 해물 작은도서관의 중요 운영인력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자발적으로 모여든 주민자원봉사자들은 책을 좋아하고 아이들을 사랑한다는 공통점이 있는 지역사회 주민들이다. 15명가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요일 별로 오전근무와 오후근무로 서분화하여 도서관에 상주한다. 이들은 주로 도서 대출이나 반납, 서가관리, 도서관 캠페인, 도서관 청소 등의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해물 작은도서관에서는 이들 자원봉사자들 모두가 도서관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위크 두 파트 자원봉사자들이 한데 모이는 회의도 연 4회 이상 실시한다. 이 회의를 통해 봉사자들이 동네주민으로부터 수집한 의견을 내놓으면 도서관 측은 그것을 도서관 운영에 적극 반영한다. 이와 같이 해물 작은도서관은 명실공히 주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도서관으로, 동네의 작은도서관이 지향해나가야 할 모범사례로 여겨지고 있다.

“35세 윤혜영입니다. 우리 동네에 작은도서관이 생긴다는 소식은 벌써부터 들었습니다. 기대가 컸어요. 오늘 실제로 와서 보니 깨끗한데다 따스함이 느껴지는 공간이라 마음에 들어요. 저는 책 읽는 걸 워낙 좋아해서 평균 일주일에 세 번 이상은 방문하고 있는데, 봉사자분들의 따뜻한 인사말에서 늘 정겨움을 느끼곤 합니다. 주말에도 이용 가능하면 더욱 좋을 것 같아요”



INTERVIEW 노현송 강서구청장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개관의 의미와 소감

해물 작은도서관이 들어선 자라는 그동안 행권이 어려운 아이들에게 교육, 복지, 보건서비스 등을 지원해 오면 곳이었으나, 다른 사업과 통합이 되면서 빈 공간으로 남아 한동안 무엇으로 채워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곳을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뜻 깊은 공간으로 채우게 되어 매우 기쁘고 만족스럽습니다. 아마도 주변의 부모님들과 아이들도 같은 마음이라 생각합니다. 해물 작은도서관이 이곳에 들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신 문화체육관광부, MBC,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그리고 국민은행 관계자 여러분들께 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역 주민에게 하고 싶은 말

작은도서관이 지역 문화 공동체의 거점이 되어 ‘책 읽는 문화’가 주민들의 생활 속에 뿌리 깊게 정착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공간이라 할지라도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으면 불필요한 공간이 되어 버립니다. 작은도서관이 꾸준히 그리고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구민 여러분께서 더욱 더 많이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정책방향

우리구의 구정목표 중 하나가 ‘꿈을 여는 교육도시’입니다. 강서구를 명품교육도시로 만들기 위해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많은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도서관 사업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현재 8개의 구립도서관과 24개의 작은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민들이 편리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작은도서관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계획입니다. 도서관은 만드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운영하는가가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작은도서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예산 지원과 순회사서를 배치하고, 운영자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높이는데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립도서관과 작은도서관의 상호지원체계를 확립하여 다양한 독서문화 프로그램과 관내 상호대차 서비스를 운영하는 등 작은도서관이 공공도서관의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해물 작은도서관

원래 ‘위스타트(We-Start) 강서마을’ 사무실과 아동 프로그램실로 사용되던 곳이었지만 리모델링을 통해 작은도서관으로 재탄생했다.



도서관명 : 해물 작은도서관

개관일 : 2015년 07월 29일

소재지 : 서울시 강서구 방화대로 48길 40,
방화2동합사회복지관 3층

면적(규모) : 165㎡

시설내역 : 열람실, 유아 독서실 등

협참석 : 36석

장서(도서수) : 5,217권

회원수 : 115명

이용현황 : 월 80명

운영자 : 운영주체-굿네이버스 방화2동종합사회복지관
(주민 자원봉사자 활용)

운영시간 : 월-금요일 09시-18시

전화/팩스 : 02-2662-6669

삼성산



정겨운 붉은 벽돌집 2층은 아이들의 책 놀이터



삼성산 작은도서관은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중 가장 작은 규모(33평)이긴 하나 어린이들이 자유로이 소리 내어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유리로 칸막이를 설치하여 어린이 공간을 마련하였다. 삼성산경로당 2층에 자리 잡은 삼성산 작은도서관은 108.81㎡ 면적에 6,000권의 도서와 30석의 열람석을 갖추고 있다.

소리 내어 책을 읽어도 괜찮아요

안양시의 70번째 작은도서관인 삼성산 작은도서관의 개관일은 작년 7월 23일. 정겨운 붉은 벽돌로 지어진 마담한 건물에는 '삼성산 경로당' 간판과 '고맙습니다 삼성산 작은도서관' 간판이 각각 왼쪽과 오른쪽에 사이좋게 붙어있다. 그중 '삼성산 작은도서관' 간판은 병아리 같은 노란색이라 보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는 느낌이다. 삼성산 작은도서관이 자리 잡은 이 건물은 본래 일층에는 경로당이, 2층은 청소년 공부방으로 사용되던 곳이었다. 하지만 기존 공부방의 사용빈도가 낮아서 2층을 리모델링하여 도서관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작은 규모라 오히려 아늑한 느낌을 주는 삼성산 작은도서관은 엄마들에게는 카페와 같은 휴식공간으로, 아이들에게는 또래 친구들과 함께 자유롭게 책을 접할 수 있는 자유로운 공간으로 자리 잡아 가고 있다.

삼성산 작은도서관은 입지조건이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한다. 근처에 김중업박물관과 안양예술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자연과 하나가 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점도 큰 장점이다. 책을 읽다 지루하면 공원을 한 바퀴 둘러 볼 수도 있고, 문득 책을 덮고 김중업박물관에 둘러 다양한 공예품이나 기타 소장품을 감상할 수도 있다. 또 반대로 박물관이나 공원에 왔다가 내키면 도서관에 들려도 되니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다.

“ 석수1동에 거주하는 20대입니다. 집 가까운 곳에 있는 도서관을 찾다가 이곳이 눈에 띄어서 오게 되었습니다. 개인 사정상 2~3주에 한 번 밖에 오지 못하는 점이 아쉬워요. 접근성이 좋다는 것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겠어요. 저는 베스트셀러 위주로 대출해가는 편입니다. ”



숲속 향기 가득한 아늑한 도서관

삼성산 작은도서관은 국민은행이 사업비 9,500만원을 후원하고 인테리어는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이, 도서 8,000권은 안양시가 기증하여 만들어진 3개 기관 합작품이다.

작년 7월 23일 가진 개관식에는 이필운 안양시장, 윤종규 국민은행장, 김수연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대표 등을 비롯한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 즐거운 시간이 되었다. 풍물패 놀이와 시낭송, 책속의 한 문장을 부채에 써넣는 등 다채로운 행사 프로그램도 선보여 볼거리가 풍성한 개관식이었다. 특히나 도서관 주변 공원 전체를 책 표지로 장식하는 이벤트도 함께 벌어져 뜻 깊은 개관식 행사였다는 평가를 받았다. 작은도서관 개관 때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원로 가수 서수남의 미니 축하무대도 볼거리 중 하나였다. '동물 농장', '과수원길', '팔도유람' 등의 히트곡으로 유명한 가수 서수남은 현재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교원으로 활동 중이다.

“20대이며 안양2동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집 앞이라 혼자서 거의 매일 오고 있으며, 주로 책을 읽거나 그림을 그립니다. 홍보가 잘 되어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면 좋겠습니다.”

개관식 날 이필운 안양시장은 도서관 조성에 감사하며 윤종규 국민은행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그리고 윤종규 국민은행장은 도서관을 방문한 아이들에게 직접 책을 읽어주기도 해서 좋은 반응을 얻었다. 이날 안양시의 한 관계자는 “삼성산 작은도서관이 지역주민들의 지식향양과 인문학 도시 안양을 만드는데 일조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작은도서관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으며 KB국민은행 관계자도 “청소년과 지역사회 주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는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가겠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히면서 작은도서관이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공간이 되기를, 그리고 지역주민에게 언제나 편안히 찾을 수 있는 쉼터가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석수1동에 사는 주민입니다. 아담하고 조용한 분위기가 마음에 들어요. 집과 가까워서 일주일에 1~2회 방문합니다. 대부분 혼자 오는 편이며 인문학서적 위주로 읽고 있습니다. 자리가 안락해서 책을 읽거나 공부하기에 적당한 곳입니다. 최신 베스트셀러가 많이 있으면 더 좋겠어요.”

대안학교 및 박물관과 연계한 프로그램 계획

사실 그간 이 지역은 도서관을 이용하려면 자동차로 10분정도 이동해야 해서 어린이들이나 어르신들의 도서관 이용이 쉽지 않았다. 따라서 이번 작은도서관 개관으로 누구보다 기뻐한 사람들은 어린이가 있는 가정이었다. 이제 이 지역의 주민들은 아이들 손을 잡고 함께 도서관 방문하는 일이 일상의 즐거움이 되었다. 아이들과 함께 책을 읽고 공원도 산책하고 박물관에 가서 문화생활도 함께 할 수 있는 행복은 이번 삼성산 작은도서관 개관이 주민들에게 준 커다란 선물이라고 할 수 있다.

삼성산 도서관은 개관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아직은 정학원 프로그램이 없지만 인근 대안학교 및 박물관과 연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계획하고 있다니 앞으로가 기대되는 작은도서관이다. 삼성산 작은도서관은 현재 2명의 직원이 격일로 근무하고 있으며, 월요일과 일요일, 법정휴일은 문을 열지 않는다. 화~금요일은 오후 2시30분~오후 8시까지로, 늦게 여는 대신에 저녁 시각까지 문을 열고 있어 직장인들도 이용하기 편리하며, 토요일은 오전 10시~오후 4시까지다.



INTERVIEW_이필문 안양시장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개관의 의미와 소감

“고맙습니다. 삼성산 작은도서관이 마침내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 청소년 공부방이었던 삼성산 작은도서관이 새롭게 탈바꿈하여 (2015년 7월 23일) 우리 시 석수동 예술공원 입구에 들어섰습니다. 지리적 여건상 도서관을 이용하기 어려웠던 이 지역 주민 여러분께 값지고 소중한 공간으로 돌아오게 되어 기쁘기 그지않습니다. 오늘의 멋진 도서관을 만드는 데 큰 도움 주신 사단법인 ‘작은도서관 만드는사람들’과 KB국민은행에 주민들을 대신하여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역 주민에게 하고 싶은 말

“도서관을 통해 마음의 양식과 따뜻한 감성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시에서도 도서관을 중심으로 다양한 책 읽기 및 독서문화 행사 등을 추진, 안성과 교양을 두루 갖춘 안양도서를 만들어 나아갈 것입니다. 아울러 금년 6월과 10월 각각 개관하는 관양도서관과 삼덕도서관도 많이 이용해 주시길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정책방향

“누구나 손쉽게, 언제 어디서나 빠르게, 책과 접해야 합니다” 안양시는 2013년 문화체육관광부 ‘작은도서관 활성화 시범지역’에 선정된 바 있습니다. 이를 계기로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 간의 상호대차서비스 기반을 갖추으로써 시민 독서편의를 높이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해 안양시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 지역 주민들이 언제든 가까운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현재, 안양시는 8개의 공공도서관을 비롯한 68개의 작은 도서관을 통해 시민 누구나 수준높은 독서문화 생활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덧붙이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적어주세요.

“올해를 제2의 독서운동 원년으로 삼아 보시기 바랍니다” 2015년 국민독서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1년에 단 한권의 책도 읽지 않는 사람이 10명중 4명에 달합니다. 독서는 미래 경쟁력입니다. 안양시의 제도약을 위한 ‘제2의 안양부흥’ 원년인 2016년 올해, 시와 책 읽는 시민이 함께 뛰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고맙습니다 삼성산 작은도서관

근처에 김중업박물관과 안양예술공원이 위치하고 있어 자연과 하나가 되는 느낌을 가질 수 있는 숲속 향기 가득한 도서관이다.



도서관명 : 삼성산 작은도서관

개관일 : 2015년 07월 23일

소재지 : 안양시 예술공원로 103번길 17, 삼성산경로당 2층

면적(규모) : 108.81㎡(33평)

시설내역 : 안내데스크, 자료실, 어린이실, 디지털자료 검색실

사업비 : 9500만원(국민은행 후원)

월람적 : 30석

정서(도서수) : 약 3,000권

이용현황 : 월 2~300명

운영자 : 파트타임 인력운영(2명)

운영시간 : 화~금 14시30분~20시 / 토 10시~16시

전화/팩스 : 031-471-6494 / 031-8045-6518



어울림

책도 읽고 친목도 도모하고,
오랜 숙원이었던 도서관 개관

어울림 작은도서관이 들어선 익산시 신동 인근 지역에는 북일초등학교, 신동초등학교, 북초등학교 등의 초등학교를 비롯하여 남성고, 남성여고, 남성중, 이리공고 등 많은 학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공도서관 하나 없던 문화시설 취약지구였다. 때문에 도서관 건립은 청소년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들의 숙원이기도 했다.



오랜 기간의 숙원이 마침내 이루어지다

어울림 작은도서관이 위치하고 있는 전북 익산시 남중동·신동지역은 29,299명(2015년 3월 익산시 통계)의 주민들이 사는 지역으로 2010년부터 꾸준히 작은도서관 조성 요구가 있던 곳이었다. 그러나 적당한 장소를 찾지 못해 긴 기간 애를 태웠다. 그러던 중 2014년 8월 732세대의 재건축아파트단지 익산금호어울림아파트가 신축되고 단지 내 3층짜리 편의시설 건물 3층에 유휴공간이 있어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조성사업에 신청서를 냈다. 일단 선정이 되자 사업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6월 19일 시청 소회의실에서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과 익산시가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조성 및 운영지원을 위한 협약식을 맺은 것이 사업의 시작이었다. 시설은 KB 국민은행 후원금 9,500만원으로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에서 조성하며 운영비는 익산시에서 부담한다는 것이 협약서 내용이었다. 이어 7~8월 인테리어 및 가구제작 등의 공사를 진행하였고 10월 28일에는 개관식을 진행하게 되었다. 60평 규모에 감악실 28석, 자료실 34석, 유아실 6석을 갖춘 어울림 작은도서관이 드디어 2015년 10월 28일 개관식을 가졌을 때 아파트 입주주민들은 물론이고 마을 어린이들과 많은 주민들이 그 모습을 보기 위해 모여들었다. 이날 개관식에는 동물농장, 과수원 길로 유명한 가수 서수남의 축하공연도 마련되어 더욱 분위기가 무르익었다.

“ 64세 동네주민 이인숙입니다. 우리 아파트에 도서관이 생기니 기쁜 마음에 지인과 함께 와봤습니다. 예상보다 시설이 잘 정비되어 있어서 놀랐습니다. 신간을 주로 읽는 저로서 신간도서가 많이 구비되어 있다는 점이 특히 마음에 들고, 책장과 책상의 배치가 썩 잘 되어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독서 환경은 상위에 속하는 것 같아요. ”

28석 강의실까지 갖춘 최상의 작은도서관

개관 초기 장서는 4,000여권(2016년 2월 현재 4466권)으로, 아파트건설업체인 금호건설에서 1,000권을 지원받았으며, 나머지는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과 익산시에서 지원받았다. 향후로도 익산시와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에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기에

“ 저는 이리북일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김진혁입니다. 처음엔 엄마의 권유로 오게 되었지만 몇 번 오다 보니 자주 와서 책을 읽어야겠다고 결심하게 되었어요. 책이 많은데다가 모두 새 책이라 읽을 때 기분이 좋아요. 저는 거의 동생과 함께 와서 책을 읽습니다. ”

앞으로도 신간 도서 구입에 큰 걱정은 없다. 도서관은 이용자들의 신청을 받아 이용자들이 원하는 책 위주로 구입할 예정이다. 이용자들의 니즈를 알기 위한 방법의 일환으로 신청서를 항상 비치하고 있다.

어울림 작은도서관이 위치한 어울림아파트는 어린이자녀를 둔 가정에서부터 어르신들까지 여러 세대가 거주하고 있기에 다양한 종류의 도서가 필요하지만 우선은 어린이들이 읽을 수 있는 그림책과 동화책이 시급하다고 판단, 당분간은 어린이용 도서 위주로 구입할 계획이다.

어울림 작은도서관은 일반자료실과 어린이실 외에 강의실까지 마련되어 있어 작은도서관으로는 최상의 시설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특히나 어린이실은 은돌 마루바닥으로 만들어 아이들이 어떤 자세로든 편안하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배려하였다. 도서관을 채우고 있는 서가와 책상, 의자들은 모두 고급원목으로 제작되었으며 특별히 좌석 28석의 강의실이 마련되어 있어서 지역주민들과 어린이들이 참여하는 독서문화프로그램 등을 진행하기에 좋은 환경을 갖추고 있다.





도로변에 위치, 누구든 편하게 이용가능

어울림 작은도서관이 아파트단지 내에 있다 보니 혹시 아파트 주민이 아니라면 이용에 불편하지 않을까 걱정할 수도 있지만 다행히 그렇지 않다. 도서관이 들어선 아파트상가가 도로변에 위치해 있어 아파트 거주민이 아니어도 편한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관한 지 오래되지 않아 아직은 크게 활발하지 않지만 아파트 인근 유치원을 비롯해 다른 지역에 있는 유치원에서도 이곳으로 견학을 오는 사례가 종종 있어 매우 고무적인 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더욱이 아이들이 단순한 도서관 견학에만 그치지 않고 용기 쫓기 있어서 독서에 열중하는 모습을 보라치면 도서관 관계자로서 더없이 보람을 느낀다고 귀띔한다. 종종 인솔 교사가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는 경우도 있는데, 이러한 활동에 착안, 향후 도서관 방문 어린이들을 위한 책 읽어주기 프로그램 등을 별도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어울림 작은도서관은 지역주민들과의 친화를 도모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지역 내 주부들과 도서관을 연계시킨 프로그램을 추진 중이다. 주부들이 좋아할만한 도서를 선정하여 북클럽을 활성화시킨다는가 아이들과 엄마들이 함께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식이다. 아를 프로그램이 차후 퇴직하신 중년 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더불어 진행할 계획이다.

“34세 주부 임세림입니다. 집 가까이 위치해 있어서 이전 먼 도서관까지 가지 않아도 되는 점이 좋습니다. 저는 아이가 있기 때문에 주로 육아 책과 어린이 책 위주로 보고 있는데요, 영아를 위한 책이 좀 더 구비되어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INTERVIEW_부시장 한동제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개관의 의미와 소감

“한 나라의 과거를 보려면 박물관에 가면 되고, 미래를 보려면 도서관에 가면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책 읽는 사람은 미래의 희망이고 책 읽는 지역의 미래는 풍요롭습니다. 요즘 아이들을 훌륭히 키우기 위한 다양한 학습방법이 유행하고 있지만 저는 무엇보다 어릴 때부터 책과 가까이 하고 책 읽는 습관을 갖게 하는 것이 아이의 행복한 미래를 담보하는 가장 현명한 교육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울림 작은도서관이 미래를 이끌어갈 우리 꿈나무들이 소중한 꿈을 키우는 꿈 터이자 주민들이 정보와 문화를 나누는 문화 사랑방이 되어 주민들의 큰 사랑 속에 발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정책방향

우리시에서는 시민 모두가 책에 관심을 갖고 책 읽기의 즐거움을 느낄 수 있도록 독서문화 진흥사업을 다방면으로 활성화하는 데에 노력과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작은도서관은 책을 통해 어린이와, 학부모, 동네 이웃 모두가 함께 정을 나누고 소통할 수 있는 문화공간입니다. 익산시에는 이번에 개관한 익산 어울림 작은도서관까지 17개의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이렇게 익산시 곳곳의 도서관들이 지역주민들의 사랑방으로,憩터로, 교육 및 문화·소통의 공간으로 활성화 되도록 하여 모두가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 주민에게 하고 싶은 말

앞으로 생애주기별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어린 아이에서부터 실버 세대까지 모든 시민의 균등한 독서문화 기회를 보장하고, 책 읽기를 매개로 모든 시민이 서로 소통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울림 작은도서관 개관이 있기까지 후원 해주신 KB국민은행, (사)작은도서관 만드는 사람들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어울림 작은도서관

일반자료실과 어린이실 외에 강약실까지 갖추고 있어 작은도서관으로는 최상의 시설이라 할 만하다.



도서관명 : 어울림 작은도서관

개관일 : 2015년 10월 28일

소재지 : 전북 익산시 인북로 334 익산금호어울림아파트 상가 3층

면적(규모) : 60평

시설내역 : 자료실, 강의실(빈프로젝트), 아동실 등

열람석 : 강의실 28석, 도서실 34석, 유아실 6석 및 마루설치

장서(도서수) : 2016년 2월 현재 4466권

회원수 : 150명

이용현황 : 인근주민, 유치원, 어린이집에서 방문이용

운영자 : 사서직원 1명

운영시간 : 화요일~토요일 10~18시

전화 : 063-658-0780



이삭

청소년들이 평화의 세상 꿈꿀 수 있도록 평화지향적인 가치 공유할 수 있도록

"많은 전문 책들이 있는 웅장하고 큰 도서관도 중요하지만 우리 생활 속 가까이에서 자리 잡고 있는 작은도서관에서 일상적으로 책을 접하고 독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더욱 중요하다"는 권영진 대구 시장의 말처럼 동네에서 쉽게 만날 수 있는 작은도서관의 중요성이 점차 부각되고 있다. 짧은 시간 내에 마을주민의 사랑방이자 아이들의 책 놀이터로 자리 잡은 '고맙습니다 이삭 작은도서관'은 KB 국민은행이 후원하고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이 조성한 제48호 작은도서관이다



“ 41세 주부 타나카 에렌입니다. 유치원에 다니는 아들과 함께 YMCA의 다른 프로그램 참여차 왔다가 도서관 개관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우리 모자는 이곳에 올 때 마다 꼭 도서관을 방문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온돌마루라서 집과 같은 편안함이 있고 아이에게 책을 읽어줄 수도 있어서 좋습니다. ”

건물 전체가 도서관과 상호 연계되는 시스템

대구YMCA는 100주년기념사업의 일환으로 2015년 중구 국채보상로 541번지(상서동)에 위치한 신규 건물을 매입, 이곳에다 청소년 회관을 마련했다. 이삭 작은도서관은 이 건물 5층에 있다. 이삭 작은도서관은 청소년회관을 이용하는 어린이와 청소년 및 학부모들에게 독서·문화 활동을 확산하고 창의적 체험공간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되었다. 이로써 대구시는 2011년 '고맙습니다 신천3동 작은도서관'개관에 이어 또 하나의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을 갖게 되었다.

도서관이 들어선 상서동은 대구 근대문화의 발상지로 알려진 지역이긴 하나 인구밀도가 조금 멀어지고 주로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문화적 취약지역이다. 따라서 그동안 도서관의 필요성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던 중 이번에 오랜 숙원을 이루게 된 것이다. 이삭 작은도서관이 들어선 지역은 유동인구가 많고 접근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도서관이 들어서기엔 더없이 좋은 입지라고 할 수 있다. 게다가 같은 건물 내에 청소년들을 위한 24시간 Wee Cafe '친구룸'을 비롯하여 여성가족부가 지원하는 '꿈드림', 다양한 외국인들과 다문화 가정들이 이용하는 다문화센터 등도 운영되고 있어 서로 간에 상생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다. 이는 이삭 작은도서관이 갖고 있는 큰 장점으로, 건물 전체가 도서관과 상호 연계되는 시스템이 가능하다.



전문위원회를 통한 합리적인 도서 선정

작년 8월 28일 개관한 이삭 작은도서관은 80여 평 규모에 일반 열람석 24석, 어린이용 좌식책상 2세트를 구비하고 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3,500여권의 도서는 지자체 후원을 비롯하여 개인·단체 그리고 출판협회 기증도서 등으로 마련된 것으로 앞으로도 적극적으로 도서 수를 늘릴 계획이다. 기본적으로는 예산을 확보하여 책을 구입하겠지만 뜻있는 기업의 후원이나 개인 기증 또는 YMCA회원 및 유관기관의 기증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KB국민은행의 후원을 받아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에 의해 개관한 이삭 작은도서관은 책을 선정함에 있어서 일정 기준을 미리 정했다. 첫째, 보편적이고 누구나 공감할 수 있는 책이어야 할 것, 둘째, 설득력 있는 구성과 적절한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책이어야 할 것, 셋째, 그림책의 경우라면 글과 그림이 잘 맞으며 대상에 적당한 책임가를 우선 살펴서 그 기준에 부합하는 책이어야 할 것 등의 방침을 정해 놓았다. 개관 초기에는 자주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개별 요청에 의거하여 책을 선정했으나 자리가 잡히는 대로 전문위원회를 구성, 이를 통해 도서를 선정할 예정이다.

“ 46세 직장인 황은희입니다. 직장이 도서관 근처에 있는 덕에 점심시간에 주로 이용하고 있으며 직장동료와 일주일에 보통 두세 번은 방문하고 있습니다. 조용하고 깨끗한 점이 마음에 들어요. 문화강좌나 직장인을 위한 프로그램이 있다면 참여하고 싶습니다. ”

특화된 '청소년 평화도서관'사업 진행할 계획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이 지역이 문화적 취약지역이라는 점에 주목, 이삭 작은도서관은 교육청과 연계하여 저소득층 학생들을 위한 '방과 후 자유수강권 유관기관 연계운영'을 통해 지역의 취약계층 청소년들을 적극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개관식에 참석한 김신형 대구YMCA 이사장의 "도서관을 세워서 청소년들이 책을 통해 지식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들이 도와줘야 한다고 생각한다"는 말에서도 이 지역의 청소년층에 대한 관심을 엿볼 수 있다.

이와 같이 이삭 작은도서관이 특히나 중점을 두고 있는 계층은 청소년층이다. 이는 우리나라가 지난 10년간 OECD 기준 청소년 자살률 5위에 자살 증가율 57%라는 안타까운 현실에서 기인한다. 이삭 작은도서관은 이처럼 가혹하다면 가혹하다고 할 수 있는 우리의

현실에 주목하고 청소년들로 하여금 평화지향적인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생각이다. 그리고 이를 지원하기 위해 '청소년 평화도서관'이라는 특화된 사업을 진행해 나갈 계획이다.



“ 저는 중학교 3학년 송영섭입니다. 도서관이 생겨서 호기심에 와봤는데 조용하고 아늑해서 참 좋아요. 다른 도서관에 비해 분위기가 편해서 자주 오게 될 것 같아요. 저는 공상과학을 좋아해서 주로 그 분야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청소년을 위한 무료 문화프로그램이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



INTERVIEW _권영진 대구시장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기관의 의미와 소감

먼저 우리 시에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을 선정해주신 KB국민은행과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에게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2011년 ‘고맙습니다 신천3동 작은도서관’에 이어 두 번째 기관이라 저한테는 정말 애착이 가고 관심이 가는 도서관입니다. 개관식에서도 보았지만 우리 지역 주민들이나 아이들에게 이만한 놀이공간, 미래와 희망을 꿈꿀 수 있는 공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마을이 푸근해지고 가슴이 따뜻해집니다. 모두가 내 집 같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도서관에서 많은 지식을 얻고 책과 더불어 살아간다면 앞으로 우리의 아이들은 이 지역에서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이 나라의 큰 기둥으로 우뚝 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작은도서관 정책방향

현재 우리 시에는 2015년 12월 말 기준으로 228개의 공·사립 작은도서관이 있습니다. 작은도서관 조성 활성화에 힘입어 불과 몇 년 만에 급격히 그 수가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양적인 증가 수에 비해 질적 향상이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는 공공도서관과 작은 도서관 간에 네트워크 구축 및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새로운 방향 제시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 시에서는 길어서 10분 거리 도서관 조성을 위해 더욱 애를 쓸 것이며, 각계각층과 더불어 마을주인의 사랑방이자 아이들의 책 놀이터로 이 작은도서관에서 무궁무진한 가능성을 도출할 수 있도록 힘쓰고 노력할 생각입니다.

지역 주민에게 하고 싶은 말

지역에 있는 작은도서관은 그곳에 사는 주민들이 주인입니다. 모두가 주인이라는 인식 아래 도서관을 아끼고,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권익이 도서관을 이용하고 책과 어울릴 수 있도록 어른들이 먼저 솔선수범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읽는 책은 우리의 정신과 영혼을 건강하게 합니다. 우리의 선열들은 “하루의 독서는 천년의 보배다”라고 말했습니다. 많은 전문 책들이 있는 웅장하고 큰 도서관도 중요하지만 우리 생활 속 가까이에 자리 잡고 있는 작은도서관에서 일상적으로 책을 접하고 독서할 수 있다는 사실이 더욱 중요합니다. 따라서 우리 아이들이 엄마 아빠와 함께 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이야말로 더 큰 의미가 담겨져 있는 도서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 작은 공간에서 책과 함께 놀고 마을 주민들의 사랑방 역할로 오래 소중한 공간으로 지속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이삭 작은도서관

대구YMCA 100주년기념관 5층에 위치해 있으며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에 의한 제48호 도서관이다.

도서관명 : 이삭 작은도서관

개관일 : 2015년 08월 28일

소재지 :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상로 541(상서동)

시설내역 : 유아 및 어린이 도서 전용코너 운영, 인터넷 검색대 및 열람석, 정기간행물 코너, 청소년 평화도서 코너 설치

열람석 : 일반열람석 24석, 유아 및 어린이용 좌식책상 2세트

면적(규모) : 60여평(공유공간 제외)

장서(도서수) : 3,500여권

회원수 : 현재 85명

이용현황 : 월평균 200명

운영시간 : 평일 10시~18시(4월부터 토요일 10시~17시 예정)

전화/팩스 : 053-422-2100/053-255-0316

PART 2
군인 가족
작은도서관

2.1 오션빌	54P
2.2 청나래	60P
2.3 백골자등	66P
2.4 청룡	72P





오션빌

전군 최초의 작은도서관 '큰'꿈 이룰 수 있는 '작은'도서관이고 싶어

오션빌 작은도서관은 군이라는 특수성을 가지면서도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전군 최초의 도서관이다. 해군 진해기지사령부 군 관사에 위치하고 있지만 군에 대한 딱딱한 이미지를 버리고 따뜻한 매개체로 다가가는 것을 목표로 한다. 오션빌 작은도서관은 도서관을 운영하는 해군 진해기지사령부와 이를 관할하는 창원시청, 그리고 지역주민 등이 서로 힘을 모아 도서관 발전이란 공통된 주제로 함께 고민하며 의견을 나누는 열린 도서관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방치되어 있던 주민공동문화공간을 리모델링해 기관

해군 진해기지사령부는 지난해 10월 29일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영로 19(동상동)에 있는 군 관사 오션빌에서 국방부와 해군, KB 국민은행,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관계자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작은도서관 개관식을 가졌다. 군 관사 내 작은도서관 개관은 전군을 통틀어 처음 있는 일이라 그 의미가 특별했다.

오션빌 작은도서관은 기존 오션빌 내 문고실 등으로 활용되던 주민공동 문화공간을 리모델링해 개관하게 되었다. 말이 주민공동 문화공간이지 활용도가 낮아 거의 빈 곳으로 방치되어 있다시피 하던 곳이었다. 이 공간을 산뜻한 색으로 도색하고 조명과 난방시설도 새로이 하여 도서관으로 만들었다. 군 관사 아파트 '오션빌'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여 '오션빌 작은도서관'이라는 이름을 얻게 된 이 도서관은 민·관·군이 함께하는 새로운 모델의 도서관이다.



오션빌 작은도서관은 192.6㎡ 규모로 KB국민은행과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로부터 기증받은 도서 4,822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반열람석 18석 어린이열람석 6석 등 총 24석의 열람석에 인터넷 검색용 PC 2대를 포함한 정보 검색대를 갖추고 있다. 개관한지 오래 되지 않았지만 군 가족들의 휴식처이자 군 자녀들이 즐겨 찾는 문화공간으로 일찍이 자리 잡아 널리 이용되고 있다.

“ 31세 최성화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에도 도서관이 생겨서 기뻐요. 규모가 작긴 해도 그 점이 오히려 안락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 같아서 단점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일주일에 두 세 차례 아이와 함께 방문해서, 동화책을 대출해가고 있어요. ”

군인가족 아니어도 누구나 이용 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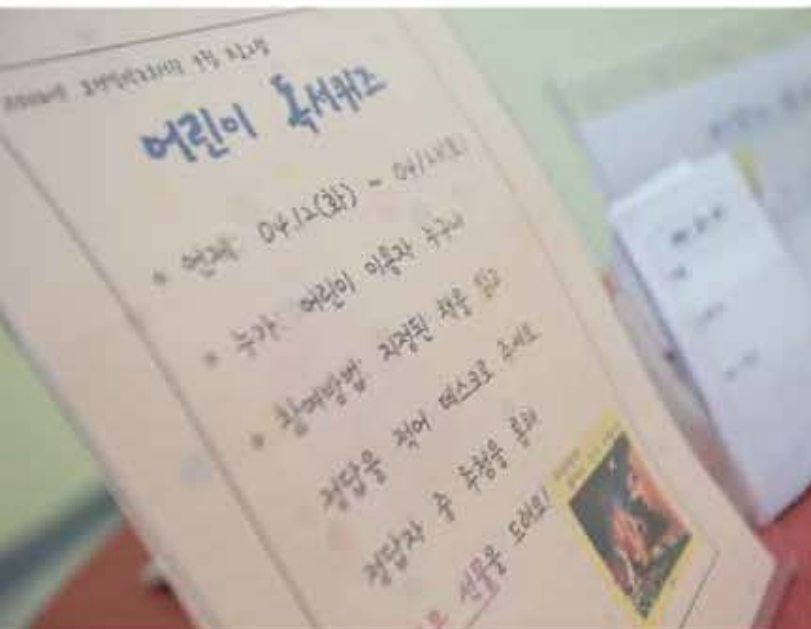
오션빌 작은도서관은 관사 내에 위치하고 있지만 군인가족이 아니어도 인근 주민 누구나 이용이 가능하며 정병 및 군무원도 언제든지 편한 마음으로 이용할 수 있다. 오션빌 작은도서관이 개관되기 전에는 책을 읽을 때나 대출 시 멀리 떨어진 진해 공공도서관을 이용해야 했지만 그런 불편함이 사라지게 된 것에 주민들은 크게 기뻐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도서관 개관을 반긴 좋은 어린 자녀를 둔 주부들로, 관사 내 유치원에 다니는 아동들이 언제든지 맘껏 책을 읽을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된 것에 대해 감사하고 있다. 오션빌 작은도서관은 단순히 독서만 하는 공간에서 벗어나 여러 프로그램을 활발히 운영하고 있다. 지난 2월에는 '나만의 냇지 만들기' 프로그램을 진행하였고 3월에는 '세 학기 세 친구' 프로그램을 진행, 좋은 반응을 이끌어냈다. 이 같은 열렬한 호응에 힘입어 새로이 계획 중인 프로그램으로는 '엄마와 함께하는 어린이 동화 읽어주기'가 있으며, 반응이 좋을 시 향후 지속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 42세 다은이 엄마입니다. 아파트 안에 있는 도서관이라 자연스레 발길이 닿았어요. 두 아이와 함께 방문하고 있는데 학기 중에는 두세 번, 방학 땀 거의 매일 옵니다. 독서하면서 차 한 잔도 곁들일 수 있는 편한 쉼터가 생기면 더욱 자주 올 거 같아요. ”

딱딱한 이미지 버리고 따뜻한 매개체 되도록 노력

오션빌 작은도서관은 군이라는 특수성을 가진 색다른 도서관이니만큼 딱딱한 이미지를 버리고 책을 매개로 하는 따뜻한 공간이 되고자 한다. 또한 오션빌 작은도서관은 주민들이 도서관에 찾아오기를 앉아서 기다리지 않는다. 도서관이 먼저 주민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게 기본적인 생각이다. 이를 위해 독서캠프라든가 시 낭송대회, 작가와의 만남 등과 같은 프로그램을 실시 혹은 계획 중에 있다. 오션빌 작은도서관을 찾는 이용자는 일일 평균 대출 30명에 열람은 40명 가량이다. 책을 읽고 싶어 하는 직장인들의 퇴근시간을 고려하여 평일의 경우 저녁 7시까지 문을 열고 있으며 토요일도 8시까지 이용 가능하다. 오션빌 작은도서관은 또한 도서관 이용자들로부터 구입희망도서를 꾸준히 조사하고 있는데, 이렇게 하여 선정된 도서는 전문사서의 수서작업을 거쳐 그것이 수준 높은 양서일 경우 도서관에 비치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향후로는 인근 공공도서관과 협력하여 상호대차 서비스라든가 국회도서관의 논문서비스 제공까지도 자료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9세 이나현입니다. 아파트 놀이터에서 놀다가 우연히 들르게 되었어요. 와서 보니 재미있는 책이 많아서 좋았어요. 새로 들어온 책을 손쉽게 찾을 수 있는 점이 참 좋아요. 따뜻한 마룻바닥과 폭신한 어린이 소파가 있어서 책 읽기도 편해요.”



INTERVIEW 송백근 해군전해기지 사령관

‘오션빌 작은도서관’ 개관의 의미와 소감

오션빌 작은도서관은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KB국민은행의 지원을 받아 2015년 10월 29일에 개관하였습니다. 개관한 지 반년도 채 안되었지만 군인 가족 및 인근 주민에게 ‘작은도서관’은 생활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책 한권을 빌리기 위해 버스를 타고 나가야했지만 지금은 걸어서 5분이면 도서 5,000여권을 접할 수 있습니다. 군인가족의 독서문화 향상을 위한 전군 최초의 작은도서관이라는 점에서 ‘오션빌 작은도서관’의 개관은 남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션빌 도서관 개관을 후원해주신 KB국민은행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어떤 도서관으로 운영되길 바라시는지?

최근 지역 도서관들은 도서 열람·대출만을 제공하는 단순한 공간에서 벗어나 이용자들이 다양한 독서·문화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인근 주민들이 서로 소통할 수 있는 지역공동체의 공간으로 탈바꿈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서관의 역할이 증가됨에 따라 우리 도서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은 ‘책을 통한 지역사회의 어울림’이라 생각합니다. 오션빌 작은도서관이 박물관이나 미술관과 같은 지역문화시설로 자리 매김하여 군인가족과 지역주민을 하나의 ‘문화 공동체’로 형성해 가는 매개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작은도서관 관련 군인가족이나 지역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마이크로소프트의 창립자인 미국 기업인 빌 게이츠는 “오늘의 나를 있게 한 것은 우리 마을 도서관이었다. 하버드 졸업장보다 소중한 것은 독서하는 습관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작은’도서관이지만 그 속에서 얼마든지 ‘큰’ 꿈을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 오션빌 작은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100% 활용하여 큰 꿈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오션빌 작은도서관

전군 최초의 작은도서관으로, 해군 전해기지사령부 군 관사 오션빌 내 문고실 등으로 활용되던 주민공동문화공간을 리모델링해 개관하게 되었다.



도서관명 : 오션빌 작은도서관
개관일 : 2015년 10월 29일
소재지 :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명로 19(동상동, 오션빌)
면적(규모) : 192.8㎡
시설내역 : 열람실, 어린이방, 안내실, 화장실(남/여)

장서(도서수) : 4822권
회원수 : 683명
이용현황 (1월 평균) : 대출 30명 열람 40명
운영시간 : 화~금 10시 ~ 18시 / 토 09시 ~ 18시
전화 : 055-549-4129



공군 최초의 작은도서관, 공군 작은도서관들의 롤모델 되고 싶어

공군 최초의 작은도서관인 청나래 작은도서관이 지난 해 11월 개관했다. 100㎡ 규모에 열람석 18석, 4,627권의 도서(단행본 4,624, 간행물 5종)를 갖추고 개관한 청나래 작은도서관은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복원로 3223번지 스포렉스 건물 일층에 동자를 들었다. 스포렉스는 체육시설을 비롯하여 스넥바, 베이커리 등이 고루 갖춰진 복합건물로, 여기에 작은도서관까지 개관하게 되면서 제8전투비행단의 복합문화체육공간으로서 손색없는 장소가 되었다.



'접근성이 높아야 한다'는 주민들의 니즈에 부합

청나래 작은도서관이 들어선 인근 지역의 주민들은 그간 도서관을 가는 것이 큰 부담이었다. 청나래 작은도서관이 생기기 전까지는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관사가족의 경우, 비행단에서 차로 30분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는 원주시 교육문화관을 주로 이용하였고, 학생들의 경우는 학기 중에 이용 가능한 학교도서관을 이용해 왔다. 하지만 책 읽을 시간이 많은 주말이나 방학 동안은 걸어서 갈 수 있는 도서관이 비행단 주변에 없어서 책을 접할 기회가 적었다. 그런 만큼 주민들이 도서관의 조건 가운데 가장 최우선으로 원했던 사항이 바로 '접근성이 높아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어린이들의 꾸준한 독서습관 형성을 위해 '계속 가고 싶은 도서관'을 만들어 달라는 의견이 많았다. 정서가 많고 큰 도서관이라 하더라도 책을 읽을 때 불편함을 느끼게 하거나 분위기가 답답할 경우 어린이들은 도서관을 찾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도서관이 단순히 책을 빌리거나 읽기만 하는 장소가 아닌 '문화의 장'이자 배움의



공간이 되었으면 하는 의견도 많았다. 이러한 주민들의 니즈를 모두 감안하여 자리 잡은 곳이 스포렉스 건물이다. 관사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접근성이 뛰어날 뿐 아니라 이미 들어서있는 다양한 시설물들로 인해 도서관 이용을 보다 더 편리하게 만들 수 있으리라는 것이 장점으로 작용했다.

“30대 후반 주부입니다. 새 책에다 새 가구, 이 도서관의 모든 것이 다 마음에 들어요. 특히 나무냄새가 저는 참 좋아요. 다른 도서관에 비해 천장이 높은 데다 책장도 키가 낮아서 시야가 트여 있는 점도 흡족해요. 자주 오고 싶게 만드는 공간입니다. 제가 주부이다 보니 아무래도 요리책이나 육아·교육관련 책들을 주로 읽어요. 방과 후엔 아이들과 함께 오지만 오전엔 혼자 방문하기도 합니다.”



관사 아이들, 방과 후 자연스럽게 도서관으로 발걸음

천주성 작은도서관이 문을 연 스포렉스 일층은 본래 탁구장으로 활용되었던 장소였으나 작은도서관이 이곳에 자리 잡음에 따라 탁구장은 2층 체육관으로 이전하여 운영 중이다. 천주성 작은도서관은 주로 관사 가족들이 많이 이용하며 그 중에서도 특히 어린이들의 이용률이 높은 편이다.

비행단 내에는 여러 복지시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천주성 작은도서관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결과 평가되고 있다. 요즘은 관사 아이들이 방과 후에 도서관에 들르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 되었을 정도로 천주성 작은도서관에 대한 아이들의 반응은 좋다.

“보물섬을 악랄한 해적선 보다 더 많은 보물이 책 안에 있다”는 펠트 디즈니의 말을 여기에 대입하자면 이곳 아이들은 매일매일 보물을 만나고 있는 셈이랄까. 아동서적을 바닥형 열람실에 비치해서 어린이들이 편하게 책을 읽을 수 있도록 충분히 배려한 점도 아이들을 도서관으로 이끄는 데 한몫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부모들 입장에서 보자면, 도서관이 부대 안에 위치해 있다 보니 안심하고 아이들 혼자 내보낼 수 있다는 점에 만족하고 있다.

“초등학교 3학년입니다. 처음엔 엄마의 권유로 오게 되었지만 이제 제 스스로 찾아와요. 집 가까이 있어서 편해요. 학교 도서관 사서 선생님은 무서운데 여기 선생님은 착해요. 그리고 앉거나 누워서 읽을 수 있는 방이 있어서 참 좋아요. 책을 보러 올 때도 있지만 친구와 함께 숙제하러 오기도 해요.”



군에 작은도서관이 더 많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청나래 작은도서관은 관사가족 중에서 사서를 모집, 평일의 경우 2명의 사서가 파트타임으로 근무하고 있으며, 주말에는 자원봉사자가 사서를 대신하여 근무한다. 올해까지 다행히 사서채용 예산이 지원돼서 파트타임 근무로 운영이 가능하지만 내년부터는 예산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모두 자원봉사체제로 바뀌어야 한다. 따라서 내년에도 차질 없이 도서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현재 인력풀을 조성하는 중이다. 충분한 인력을 조성할 위해 원주시 자원봉사센터에 등록하여 자원봉사 신청을 받고 있는 중이며, 아직까지는 주로 학생 자원봉사자가 많은 편이다.

작은도서관 설립을 위한 부지 선정부터 개관하기까지의 전 과정을 지켜본 도서관 관계자는 청나래 작은도서관이 탄생할 수 있게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준 KB국민은행과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그리고 군관계자들에게 감사한다며 운을 뚫 뒤 "청나래 작은도서관 개관이 다른 부대에도 도서관을 만들게 되는 계기가 되어 공군에 더 많은 작은도서관들이 생겼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또한 "청나래 작은도서관이 앞으로 공군에 생겨날 작은도서관들의 롤모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로 앞으로의 계획을 전했다.

평일은 평오부터 저녁 8시, 주말엔 오후 1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는 청나래 작은도서관은 회원수 418명에 이용현황은 일일 평균 약 68건 정도다.



INTERVIEW_한종호 공군제8전투비행단장

'군인가족작은도서관' 개관의 의미와 소감

제8전투비행단은 그동안 가족들이 더 나은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작은도서관은 군 가족들의 복지향상에 큰 도움이 되고 있고 비행단 본연의 임무인 영공방위 임무 완수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큼니다. 청나래 작은도서관 조성에 도움을 준 KB국민은행과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어떤 도서관으로 운영되길 바라시는지?

군 가족을 위한 도서관이므로 군 가족들의 문화생활 증진에 기여하기를 바랍니다. 무엇보다 이용객들이 원하는 도서를 많이 구비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가족들에게 친근한 도서관으로 다가가야 할 것입니다. 본인과 군인 가족들이 도서관을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책 읽는 병영문화 조성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작은도서관 관련 군인가족이나 지역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책은 나와 세상을 이어주는 통로입니다. 책을 읽음으로써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세계와 소통하는 유쾌한 경험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책과 친해지려는 우리 군 가족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합니다. 내 것처럼 주인 의식을 가지고 도서관을 많이 이용해 주신다면, 작은도서관일지라도 여러분이 새로운 세상으로 나아가는 길을 비춰주는 큰 등불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맙습니다 청나래 작은도서관

탁구장으로 활용되던 스포텍스 일층을 리모델링하여 개관하였으며, 접근성이 뛰어나 특히 어린이들의 이용률이 높은 편이다



도서관명 : 청나래 작은도서관

개관일 : 2015년 11월 10일

소재지 :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복원로 323

면적(규모) : 100㎡

월납세 : 18석

장서(도서수) : 단행본 4,624권 / 간행물 5종

회원수 : 418명

이용현황(1일 평균) : 68건

운영자 : 2명

운영시간 : 평일 12:00~20:00 / 주말 13:00~18:00

전화 : 039-738-6144



백골자등

대한민국 최전방에 문을 연 작은도서관 “독서도 마음껏 하고, 아이들과 함께 하는 시간도 많아졌어요”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철원지역 최초로 민·관·군 도서관 '백골자등 작은도서관'이 문을 열었다.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과 KB국민은행이 육군3사단과 손잡고 또 하나의 작은 기적을 만들어냈다. 이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은 책이 없어 책을 읽지 못하는 산간벽지·농어촌·섬마을지역 어린이들과 주민들을 위해 작은도서관 마련하는 일을 20년째 하고 있다.



즐거워 독서에다 맛있는 원두커피는 덤

백골자등 작은도서관은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리 인근 주민이라면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도심지역 중앙에 위치해 있어 접근성이 뛰어나다. 또한 서면초등학교 및 군 직장 어린이집(스위첼)도 근접해 있어 도서관 입지로도 상당히 좋은 편에 속한다. 도서관이 들어선 곳은 전방이라는 지역적인 취약점으로 인해 문화 복지 시설이 거의 없던 지역이었다. 백골자등 작은도서관이 생기기 전에는 차량으로 약 30분 정도 이동해야만 당도하는 와수리 지역의 도서관을 이용했으나 이번 도서관 개관으로 그러한 주민들의 불편함이 사라지게 되었다.



규모 112㎡에 8,000권의 도서를 갖추고 지난 해 12월 9일 개관한 백골자동 작은도서관은 자동리 주민 및 군인가족들의 독서 여건 개선과 군인 자녀 및 학생들의 바른 정서 함양을 목표로 건립되었다. 도서관 개관에 소요된 비용과 도서, 자료검색에 필요한 인터넷PC 등은 KB국민은행과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에게서 제공받았다. 열람석은 36석에 최대 40명 이용가능한 자물식, 아동용 좌석 15석을 갖추고 있다. 월요일과 일요일에는 오후 1시부터 5시까지, 수~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용가능하고 단돈 100원으로 맛있는 원두커피도 즐길 수 있다.

한 건물에서 건강도 챙기고, 책도 읽고

작은도서관이 들어선 자리는 당초 마을 복지회관으로 사용 중이었으나 이번에 리모델링을 거쳐 최관 2층은 도서관으로, 1층에는 건강 증진실을 설치했다.

개관식에는 이현종 철원군수와 남영신 육군3사단장을 비롯하여 김수연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대표, 신용섭 KB국민은행 동부 지역본부장, 박종훈 자동3리장을 비롯해 각급 기관·단체장, 주민 등 200여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냈다. 이현종 철원군수는 개관식 축사를 통해 "복지 혜택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서면 자동리 일대에 민·관·군이 협력해 작은도서관의 문을 열게 돼 뜻이 깊다"고 말했으며 또한 김수연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대표는 "앞으로 이 도서관에서 대한민국을 이끌어 나갈 인재들이 많이 나오길 바란다"고 개관 소감을 피력했다. 또한 남영신 단장은 "사단은 현재 장병들의 독서문화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여기에 더해 백골자동 작은도서관 개관으로 지역 주민과 군인가족들이 독서를 통한 정서 함양의 기회를 얻게 돼 뿌듯하다"고 말했다.

도서관 개관으로 문화·복지 혜택이 타 지역에 비해 비교적 열악했던 자동리 일대 주민들은 물론 군 장병 및 가족들에게 삶의 질을 높여줄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노인과 어린이가 함께 하는 사물놀이 프로그램 호응도 높아

백골자동 작은도서관 개관 후 주민들의 일상에서 달라진 점을 꼽으라면 무엇보다 부모와 아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아졌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 도서관이라는 공간이 마련해준 큰 선물이라 할 수 있다.

백골자동 작은도서관도 대부분의 다른 작은도서관과 마찬가지로 소셜류와 아동서적이 가장 인기가 많다. 이 점을 감안, 향후 이 분야의 책을 적극적으로 구비할 생각이라는 게 도서관 관계자의 말이다. 다행히 철원군청으로부터 도서 지원협조가 가능하게 되어 지속적으로 양서를 비치할 수 있게 되었으며, 연령대별 희망도서를 조사하여 각 연령별 선호 서적도 함께 갖출 계획이다. 기령 주부들을 위한 여성 전문잡지 구독 신청이라든가 자격증 취득 혹은 컴퓨터 관련 서적 등을 일어로 들 수 있겠다.

다만 한 가지, 전방지역에 있다는 위치적 특성상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의 제한이 있을 수 있어 그 점이 아쉽긴 하지만 가능한 한도 내에서 적극적으로 프로그램을 개발할 계획이다. 현재는 삼성 스워썬 어린이집(군 직장 어린이집) 유아반의 아와 활동 프로그램에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접목한 독서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주 수요일 1시간가량은 마을 어르신들과 아이들이 함께 어울리는 사물놀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32세 이선영입니다. 작은도서관이 생겼다가에 호기심에 와보니 분위기가 자유로워서 좋아요. 책을 보는 동안 커피도 함께 즐길 수 있는 점이 마음에 듭니다. 주 3회 정도 방문하는 편이며 여섯 살 난 아들과 함께 옵니다. 아이는 동화책을 보고 저는 여성전문서적이거나 컴퓨터 관련 책을 주로 보고 있습니다. 와수리 지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에 비해 공간이 넓은 편이고 신간도서가 많아서 좋습니다. 자격증을 준비할 수 있는 전문서적이 구비되어 있으면 더 좋을 거 같아요”



INTERVIEW 남영신 육군제3보병사단장

'군인가족 작은도서관' 개관의 의미와 소감

군인가족 작은도서관은 대한민국 최전방에서 근무하며 문화적 욕구를 충족할 수 없었던 군 장병과 군인가족에게 문화여건을 확대해주는 정서 함양의 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과 지역 학생들에게 독서의 필요를 누리게 해주었습니다. 이러한 도서관을 우리 육군 3사단과 국방부, KB국민은행,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등 민과 군이 함께 노력하여 개관했다는 점에서 이번 개관된 작은도서관은 의미가 남다른 것입니다. 조성에 참여해주신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앞으로 어떤 도서관으로 운영되길 바라시는지?

휴가를 나온 장병들이 버스를 기다리며 책을 읽고, 수업을 마친 학생들과 지역주민들께서 부담 없이 찾아와 책을 읽으며 지기를 개발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동네 작은도서관을 넘어, 삶의 질라잡이 역할을 하는 도서관이 되길 바랍니다.

작은도서관 관련 군인가족이나 지역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우리 작은도서관에는 문화·예술·과학 등 다양한 분야의 도서가 7,000여권 비치되어 있습니다. 또한 정보검색을 위한 인터넷 PC가 2대 설치되어 도서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편리하게 정보검색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해주었습니다. 지역 최초의 민·군 도서관으로 탄생한 작은도서관에 많은 사랑 주시고 적극 이용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백골자등 작은도서관

예초에는 마을 복지회관으로 사용 중인 건물이었으나 리모델링을 거쳐 회관 2층은 도서관으로, 1층에는 건강증진실을 설치했다.



도서관명 : 백골자등 작은도서관
개관일 : 2015년 12월 9일
소재지 :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동리
면적(규모) : 34평(112㎡)
시설내역 : 일반자료실, 어린이자료실

장서(도서수) : 8천권
회원수 : 130명
이용현황 (1월 평균) : 30~40명
운영시간 : 일,월 오후1시~5시,
화~토 오전9시~오후8시,
화요일 :휴관



청룡

해병대 제2사단 내 개관 제2, 제3의 청룡 작은도서관이 생겨나길, 책을 매개로 한 따뜻한 공간 될 터

청룡 작은도서관이 위치하고 있는 해병대 제2사단의 사단장 전진구 소장은 인터뷰를 통해 “도서관 개관의 긍정적인 효과는 결국 사단의 전투력으로 승화되어 국가와 국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숭고한 사명을 완벽히 완수하는 저력이 될 것이라 확신한다.”는 말로 작은도서관 개관 소감을 밝히면서 이어 “청룡 작은도서관의 활성화를 통해 제2, 제3의 청룡 작은도서관이 개관할 수 있도록 부대 차원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앞으로의 포부를 밝혔다.



해병대 제2사단 청룡 독신자 숙소 내 복지관에 위치

프랑스의 철학자 데카르트는 “좋은 책을 읽는 것은 과거 몇 세기의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것과 같다”고 했고, 미국의 사상가 에머슨은 “책을 읽는다는 것은 자신의 미래를 만든다는 것과 같은 뜻이다”라는 말로 독서의 중요성을 말하고 있다. 굳이 위의 예를 들지 않더라도 독서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모자람이 없다. 그러나 2011년 통계에 의하면 한국인 1인당 월평균 독서량은 0.8권으로 미국 6.6권, 일본 6.1권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 그런 의미에서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이 KB국민은행과 군부대 혹은 지자체와 손잡고 벌이는 작은도서관 만드는 사업은 참으로 의미 있는 사회공헌사업이라 아니할 수 없다.



2016년 새봄에 개관한 군인가족 도서관 '청룡 작은도서관'은 해병대 제2사단 군 가족들이 많이 사는 아파트 내에 있다. 작은도서관 개관 때마다 빠지지 않고 참석하는 가수 서수남의 공연과 함께 치러진 개관식에는 전진구 해병대 제2사단장과 박상욱(공군 대령) 국방부 복지정책과장, 한운기 국민은행 인천복지역그림 대표, 김수업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 대표 등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물심양면으로 애쓴 이들이 함께 하여 자리를 빛냈다.



독신자 숙소 내 복지관에 개관, 접근이 용이

청룡 작은도서관은 지난해 7월 국방부와 국민은행이 체결한 '전방부대 군인 가족을 위한 작은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대한 업무협약'의 일환으로 만들어졌다. 규모 125㎡에 자료검색대와 열람실, 어린이 공간, 휴게실 등을 갖추고 개관한 청룡 작은도서관의 운영시간은 정오에서 저녁 8시까지이며 4,330권의 도서를 보유하고 있다. 아직은 개관초기라 이용자 수가 그리 많지 않아 일일평균 대략 20여명 정도이며 가입 회원 수는 30명이다.

좌석 18석에 여덟 명 정도 수용 가능한 온돌마루 1개소, 12명이 앉을 수 있는 창가 좌석 6개소를 갖춘 청룡 작은도서관이 자리 잡은 곳은 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대포리 청룡 독신자 숙소 내 복지관이다. 때문에 관사 내 장병들은 물론이려니와 출퇴근하는 간부들이나 인근 군 가족 등 모두의 접근이 용이한 점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그러나 도서관이 군 숙소 사설 내에 있다 보니 지역 주민들로서는 출입이 부담스러울 수 있다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 점을 해소하기 위해서 단독 출입문을 따로 만들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42세 주부 강모연입니다. 지인의 이야기를 듣고 오게 되었는데 깔끔하고 아늑한 분위기라 마음이 편해지는 느낌입니다. 특히 어린이 공간이 마음에 들어요. 오늘은 혼자 왔지만 앞으로 아이를 데리고 와야겠어요. 자녀교육 관련 책을 주로 보는 편이며, 주2회 정도는 방문하려고 합니다.”



인근 주민 모두가 이용 가능하도록 적극 홍보 중

작은도서관이 개관하기 전 인근 주민들은 인천 김단의 시민도서관이나 김포 통진도서관을 주로 이용해야 했다. 거라상 자주 찾기 힘든 도서관이었다. 그러나 청룡 작은도서관이 생김으로써 바로 집 근처에서 편리하게 책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며 주민들은 매우 반가워하고 호응도 또한 높다. 하지만 아직은 이용자 대부분이 군인 및 군 가족에 한정되어 있는 편이라 이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기도 하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인근 지역주민을 도서관으로 초대하여 대화의 시간을 갖는 등 다양한 문화활동 프로그램을 실시해서 주민친화적인 도서관을 만들기 위해 애쓰고 있다.

인근 주민이나 아이들을 도서관 안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현재 추진 중인 프로그램으로는 '유아도서, 스토리텔링 식으로 읽어주기'를 대표적으로 꼽을 수 있다. 이 외에도 인근 유치원이나 어린이집, 근처 학원 등과 도서관이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실시할 예정이며, 성인과 어린이 이용자들이 함께 어울려 책을 만들거나 가족단위로 모여서 할 수 있는 책과 관련된 프로그램 개발도 연구 중에 있다.

현재는 사단본부 복지담당이 도서관 담당업무를 진행하고 있으며 사서 두 사람이 도서관에 상주하고 있다. 앞으로는 자원봉사자를 적극 활용할 생각이며, 1365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봉사자들 가운데 평소 도서관에 관심 있거나 도서관 봉사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위주로 팀을 구성하여 회원가입 업무나 대출·반납 등의 업무를 맡길 예정이다.



INTERVIEW_전진구 해병대 제2사단장



‘군인가족작은도서관’ 개관의 의미와 소감

늘 긴장 속에서 근무하는 장병들이 독서를 통해 정서적 휴식과 인생의 지혜를 쌓을 수 있도록 책 읽는 병영문화 조성 운동을 펼쳐 왔지만 정작 군 가족을 위한 시설이나 환경은 제대로 갖추지 못해 아쉬웠습니다. 청룡 작은도서관 개관의 긍정적인 효과는 결국 사단의 전투력으로 승화되어 국가와 국민이 우리에게 부여한 숭고한 사명을 완벽히 완수하는 저력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앞으로 어떤 도서관으로 운영되길 바라시는지?

우리 해병대는 언제나 적과 싸워 승리할 수 있는 최강의 군대라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주하지 않고 더욱 신뢰하는 군대로 발전하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이번 작은도서관 개관을 계기로 우리 군 가족들이 서로 원활히 소통하면서 좋은 책을 많이 읽게 되길 바라며, 군 자녀들 또한 독서를 통해 꿈을 키우고 훌륭한 어른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책을 매개로 한 따뜻한 공간으로 운영되길 바랍니다.

작은도서관 관련 군인가족이나 지역주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일일부독서 구종생형극’이라는 인종근 의사가 옥중에서 쓰신 유명한 글귀가 있습니다. 자극적인 매체에 노출되어 거친 언어생활을 하기 십상인 이 시대에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책을 통해 식견을 쌓고 세상을 바라보는 통찰력을 생각합니다. 제2, 제3의 청룡 작은도서관이 개관할 수 있도록 우리 해병대 군 가족 및 지역주민들께서 관심과 사랑으로 많이 이용해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부대 차원에서라도 다채로운 문화행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아울러 도서관개관을 위해 수고해주신 (사)작은도서관만드는사람들과 KB국민은행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고맙습니다 청룡 작은도서관

청룡 독신자 숙소 내 복지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관사 내 장병들은 물론이려니와 활동근하는 간부들이나 인근 군 가족 등 모두의 접근이 용이한 점이 장점으로 꼽히고 있다.



도서관명 : 청룡 작은도서관

개관일 : 2016년 03월 03일

소재지 :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동 사서함 2041-1호 제2해병사단

면적(규모) : 125㎡(30평)

시설내역 : 자료검색대, 열람실, 어린이공간, 휴게실

열람석 : 좌석 18석, 은둔마루 1개소(약 3명), 창가좌석 6개소(12명)

장서(도서수) : 4,330권

회원수 : 30명

이용현황(1일 평균) : 20여명

운영자 : 2명

운영시간 : 평일 12:00~20:00 / 주말 13:00~18:00

전화 : 070-8821-3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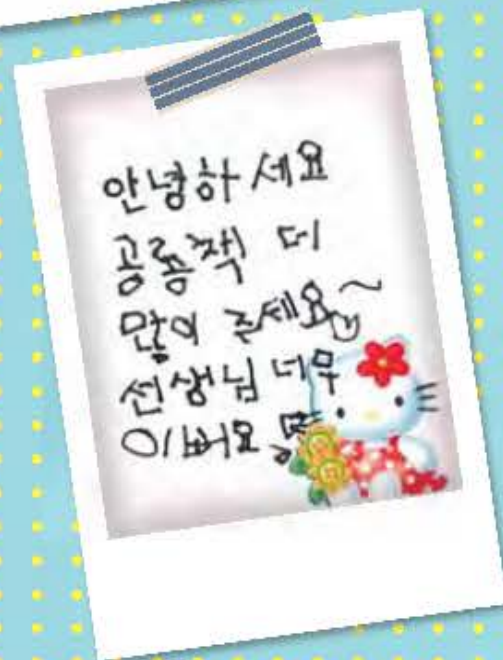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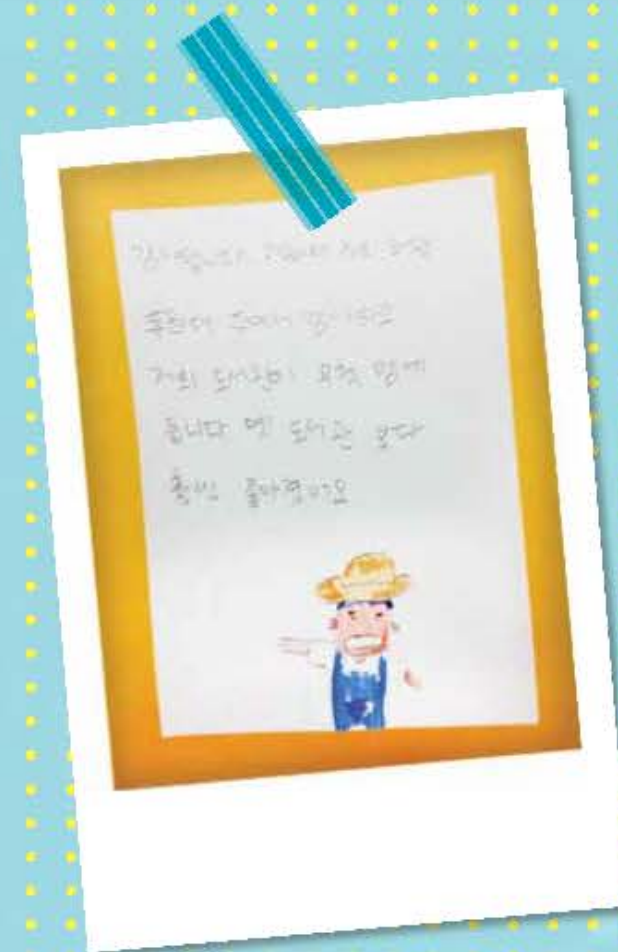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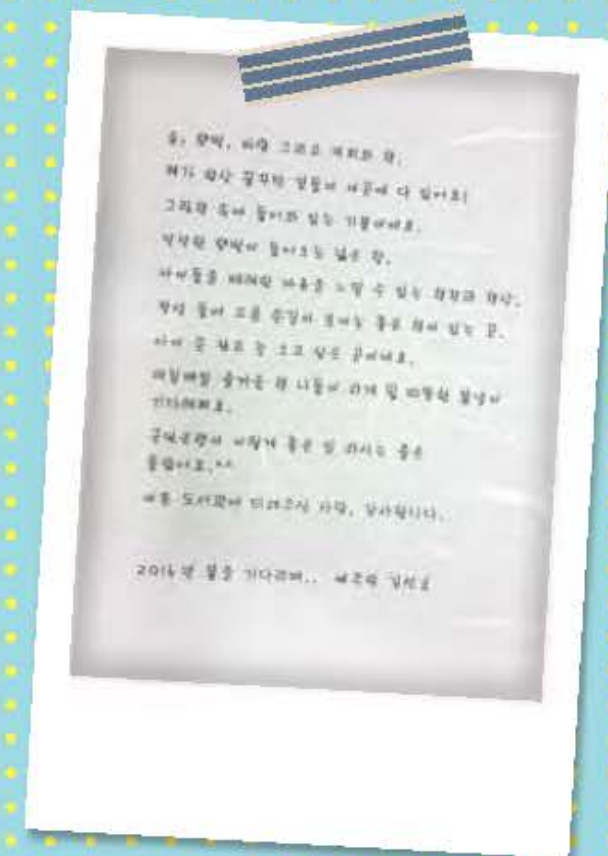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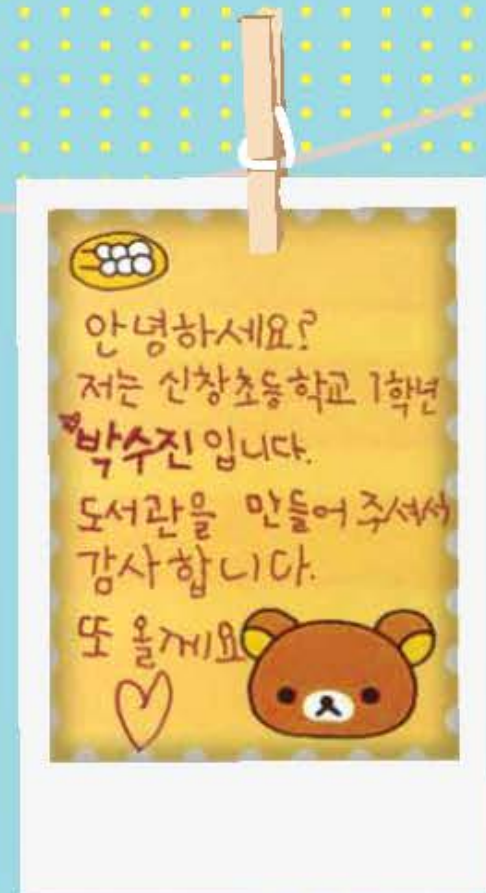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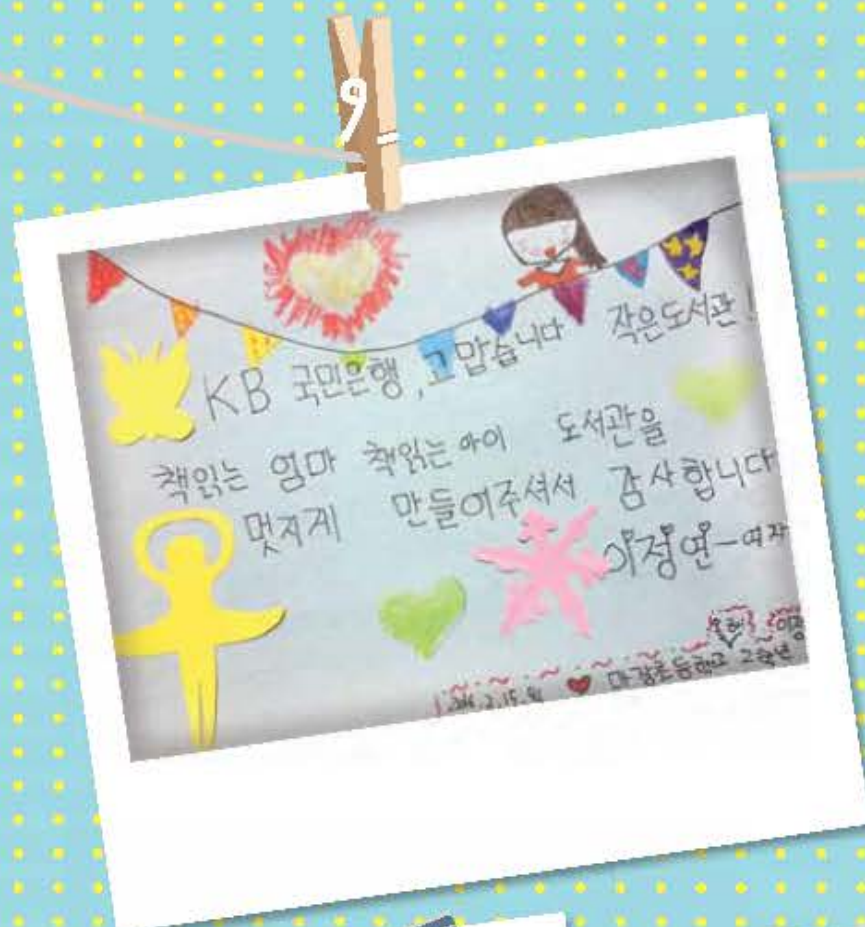
PART 3 고맙습니다 작은도서관 이야기

- 3.1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79P
- 3.2 감사편지 80P
- 3.3 KB 작은도서관
국민은행지점 매칭 현황 82P

작은도서관 독서문화프로그램



이용자들이 전하는 감사편지 고맙습니다 KB국민은행



KB 작은도서관 국민은행지점 매칭 현황



번호	도서관명	주 소	전화번호	개관연도	매칭지점
1	도원도람 작은도서관	경기도 부천시 오정구 고리울로 79 고강복지화관 3층	032-679-2702	2008	고강동
2	도담도담 작은도서관	충북 청원군 청원읍 초당3길 화천리 빌딩2층(관리사무소 2층)	043-836-1880	2008	청 권
3	교해스 작은도서관	강원도 강릉시 강릉대로 33 1층	033-640-5381	2008	강릉
4	백꽃들 작은도서관	전북 전주군 이서면 이서로 55	063-222-1919	2008	서천주
5	민들레 작은도서관	전남 아산시 마천로 77 (대평사회복지관 2층)	061-652-5427	2008	아산시
6	민달 작은도서관	경북 안동시 강남5길 102(한산아파트 1차 아파트 관리사무소 2층)	054-843-4409	2008	안동
7	청담초를 작은도서관	충남 당진시 방월로 103 한강마을아파트 내 관리동 내 2층	041-350-4652	2008	당진
8	울림 작은도서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도현남길 104-12	064-702-0845	2008	일도
9	내동 작은도서관	경남 창원시 성산구 창원대로 718 내동연천센터 2층	055-287-4114	2008	창원내동
10	초록나라 작은도서관	서울 도봉구 도봉산5길 82	02-856-7856	2008	도봉
11	꽃드림 작은도서관	전주시 완산구 삼천안길 111 2층 남암아파트 복지관 2층	093-225-7338	2008	효자동
12	드림 작은도서관	충북 청주시 상당구 남서로32번길 35	043-224-0877	2008	청주
13	보물섬 작은도서관	부산 사상구 모래포로110번길 89 모래포로사회복지관 2층	051-304-9878	2008	모래
14	수해다루 작은도서관	전북 고창군 고수면 고수로 18-5	093-561-2728	2008	고창
15	명예굴미루 작은도서관	전남 순천시 풍덕1길 52	061-749-6294	2008	순천
16	하늘 작은도서관	경북 경주시 감포읍 감포로8길 8	054-776-2100	2008	서대원
17	동근들 작은도서관	대전광역시 대덕구 개척로653번길 34 풍림사회복지관 3층	042-628-1476	2010	송촌동
18	시골다문화 작은도서관	경기도 시흥시 공단1대로252번길 5 시흥시외국민복지센터 1층	031-434-0411	2010	시흥
19	두원들 작은도서관	광주 북구 삼원로3번길 25 두원3층 주민센터 3층	062-510-1288	2010	두원동
20	솔향기 작은도서관	인천광역시 동구 솔밭로 13	032-785-8877	2010	동인천
21	물구나무 작은도서관	경남 밀양시 서평로 184 서평동주민자치센터 2층	055-386-2121	2010	밀양
22	글마루 작은도서관	부산 동구 동천로 87-1	051-483-8461	2010	동천동
23	마리솔 작은도서관	광주 서구 화개로 59-2 동천빌리스빌 관리동 2층	062-682-6225	2011	광주동
24	신천들 작은도서관	대구 동구 동천로 80 신천5주민센터 3층	053-682-2183	2011	동대구
25	시골나무 작은도서관	충북 충주시 불현로 107	043-850-8271	2011	금남동
26	성산마을 작은도서관	서울 마포구 월드컵북로 233 성산시영아파트 복지관 3층	02-373-2900	2011	성산
27	방학들 작은도서관	광주광역시 남구 방학로3길 35	062-673-0778	2011	방학동
28	하산작 작은도서관	서울 관악구 난우1가길 20-7	02-858-8884	2011	신림서
29	햇살이따뜻한 작은도서관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부흥로44번길 25 삼곡2동주민센터 1층	032-652-5172	2012	부천중원동
30	초지 작은도서관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봉선로 262 2층	031-402-1096	2012	천곡동
31	성령1층 작은도서관	충남 천안시 서북구 선영로 7	041-579-5783	2012	성령동
32	향촌 작은도서관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서로 53	032-461-1734	2012	만수동
33	성암가람 작은도서관	서울특별시 성북구 오제산로 21 성암의전학림사회복지관 3층	02-916-9193	2012	월곡동
34	해운다루 작은도서관	광주광역시 광산구 산정공원로 72번길 21-12 월곡2동주민센터	062-680-7881	2013	광산동
35	북구다문화 작은도서관	울산광역시 북구 진정로3번길 825 4L	052-289-8574	2013	북산동
36	물마을 작은도서관	강원도 속초시 대시동로337번길 6-18 물마을 작은도서관	033-639-8713	2013	속초
37	원개구리 작은도서관	전라남도 목포시 동남로 75번길 14 부영3차아파트 상가 307호	061-281-2463	2013	하당
38	오천 작은도서관	경남도 보령시 오천면 송충수영로 835	041-833-3543	2013	대천
39	이름꽃 작은도서관	서울 종로구 종로3가길 19	02-2148-2022	2013	창신동
40	삼계루브리지 작은도서관	경남 김해시 가야로 19, 관리동 2층(삼계 푸르지오5단지)	055-539-7879	2014	김해삼계
41	신정들 작은도서관	서울 양천구 신정로 202(신정3동 1285) 2층	054-579-2832	2014	신정대거리역
42	봉명 작은도서관	충북도 청주시 흥덕구 동명면 금향로33길 58 동명면사무소경 3층	02-2520-5103	2014	해관
43	월담 작은도서관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중리길 10	033-570-2832	2014	함주단구
44	완향 작은도서관	경기 김포시 문왕로 188-1	031-981-9036	2014	김기동
45	인도래 작은도서관	수원시 팔달구 장다리로 258	031-228-8381	2015	인계동
46	해운산악 작은도서관	서울시 성동구 마포로 18길 11	02-2287-5835	2016	금호동
47	자택의문 작은도서관	서울시 도봉구 도봉로 352 도봉구민회관 4층	02-301-5100	2015	창릉
48	해물 작은도서관	서울시 강서구 방화대로 48길 40, 방화2동행정복지관 3층	02-2652-8889	2015	방화동
49	삼정산작은도서관	경기도 안양시 예술광천로 103번길 17, 삼정산정로당 2층	031-471-9484	2015	만왕
50	아름다운 작은도서관	전북 익산시 인북로 884 익산금호아파트아파트 상가 3층	053-628-0780	2015	익산
51	아산 작은도서관	대구광역시 중구 국제보성로 541	053-622-2100	2015	상서동
52	오천들 작은도서관	경남 창원시 진해구 여영로 18	055-549-4128	2016	통산동
53	청나래 작은도서관	강원도 원주시 소초면 복원로 3228	033-735-6144	2015	원주
54	백꽃마을 작은도서관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동리		2015	철원
55	청문 작은도서관	인천광역시 서구 금곡로 사서함 2041-1호 제2해병사단	070-8821-8136	2016	금곡동